제2절 경제산업 행정

1.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2.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3.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 추진
4.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
5. 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구축
6. 국제행사 발굴·유치 및 국제교류 지속 추진

제2절 경제산업 행정

1.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중소기업 육성

1-1. 경제활동인구 및 중소기업 현황

가.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현황

2012년 말 전남의 인구는 1,933천명이며, 이중 노동가능 인구인 15세 이상은 1,455천명으로 2011년보다 28천명(0.02%)이 증가하였고,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2011년 63.3%보다 0.3%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912천명으로 2011년보다 26천명(0.3%)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인구로 본 전남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28.4%, 광공업 8.4%, SOC 및 기타서비스가 63.2%로 1차 산업 종사자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산업구조 및 취업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 (실업률)
				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서비스		
2010		1,428	886	869 (100)	236 (27.1)	91 (10.5)	542 (62.4)	62.1	17 (2.0)
2011		1,427	904	886 (100)	259 (29.2)	79 (8.9)	548 (61.9)	63.3	18 (2.0)
2012	전남	1,455	926	912 (100)	259 (28.4)	77 (8.4)	576 (63.2)	63.6	15(1.6)
	전국	41,582	25,501	24,681 (100)	1,528 (6.2)	4,120 (16.7)	19,033 (77.1)	61.3	820 (3.2)

( )는 취업인구기준 산업구성비

※ 통계청「통계정보시스템(KOSIS)」자료임.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경제정책담당 안기권, 담당자 이상용

나. 중소제조업 현황

(1) 중소제조업 추이

도내 중소제조업체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시책과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한 시설투자와 신규 창업으로 중소제조업체와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 도 중소제조업체는 2011년 기준 10,231개로 도내 전체 제조업체 10,254개 업체의 99.8% 수준이며, 근로자 수는 75,295명으로 도내 전체 100,239명의 75.1% 수준이다.

〈표 2-6〉 중소제조업체 추이

(단위 : 개, 명, %)

구 분		2010년		2011년	
		업체, 인원	구성비	업체, 인원	구성비
전체 제조업 (대기업포함)	업 체 수	9,933	100	10,254	100
	근로자수	93,237	100	100,239	100
중소제조업	업 체 수	9,913	99.8	10,231	99.8
	근로자수	70,403	75.5	75,295	75.1

※ 통계청「201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2012.12.28발표)」

(2) 중소제조업 규모별 추이

우리 도 전체 중소제조업체 중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7.5%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 및 경영수준이 낮아 단순 1차 가공 위주의 영세한 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7〉 중소제조업 규모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10년		2011년	
	업체수	구 성 비	업체수	구 성 비
계	9,913	100	10,231	100
중 기 업	225	2.3	252	2.5
소 기 업	9,688	97.7	9,979	97.5

※ 대기업(2011년) : 23개

(3) 중소제조업 업종별 추이

중소제조업 업종별 현황을 보면 음·식료품 제조업이 전체 중소제조업의 47.6%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농수산업 위주의 우리 도 산업구조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1%의 순으로 나타나 광양제철, 삼호조선,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의 협력업과 관계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8〉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계	음·식료품		1차금속·금속가공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18종)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2010	9,913	4,783	48.2	1,119	11.3	633	6.4	3,378	34.1
2011	10,231	4,873	47.6	1,139	11.1	648	6.3	3,571	35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홍석기

1-2. 중소기업 경영개선 및 지원체제 확립

가. 중소기업육성 중점 추진사항

우리 도의 중소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97.5%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 정책자금으로 2011년에는 1,550억원, 2012년에는 1,550억원의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였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011년도에 2,035억원,

2012년도에 2,183억원을 신용보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도내 각급기관·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전라남도 기업사랑협의회 회원들은 지역제품사주기 및 현장중심의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도의 범도민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업사랑 캠페인',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 경진대회', 'BUY-광주·전남 운동' 등을 전개하여 범도민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에 주력했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송문정

나. 제조업체 품질 및 기술력 향상

(1) 공산품 품질경영혁신 추진

제품 불량률을 0.01%(제품100만개 생산할 때 불량품10개) 이하로 줄여 우리 지역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공산품 품질경영혁신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특히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경영 역점 추진업체를 선정·구성하여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및 공정개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였고 품질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1) 품질경영 추진업체 확대 및 활성화

제품불량률 100PPM* 달성이 유망한 업체에 대한 중점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운동을 도내 전 업체에 확산하기 위해 대상 업체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

* PPM(Parts Per Million) :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의 품질관리제도로서, 제품이나 서비스 100만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 자리 숫자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 2-9〉 품질경영 추진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업 체 수	529	506	544
분 임 조	2,776	26,022	2,919

2)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중소기업 품질혁신 의식제고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6월 전라남도 주관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분임조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최우수 및 우수 분임조는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 2-10〉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참 여 분 임 조	20	28	30
시 상 분 임 조	20	28	30

(2) 중소기업 융합(이업종 교류)사업 추진

생산업종(제품)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모여 각 개별기업이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기술경영 경험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동종 업종끼리는 제공을 기피하는 핵심 정보 및 기술을 이전 받고 기업 간 우위기술을 상호 융합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제품판로까지 공동으로 개척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1〉 교류그룹 결성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그룹, 업체	24개 그룹 438업체	24개 그룹 452업체	20개 그룹 395업체

(3)『으뜸장인』 선발제도 운영

우수기능을 보유하고 기업생산성 증진에 기여한 근로자 중『으뜸장인』을 선발 시상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전라남도 으뜸장인상 조례(1994. 1. 10.)』를 제정, 매년 5명씩을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중소기업체 2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상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

선발대상은 관내 동일 공장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현장근로자 및 지도사원으로 품질분임조 활동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 및 현지 조사 후『전라남도 으뜸장인상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특전은 "으뜸장인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사내 우대계획에 의한 인사고과 반영, 해외연수 등의 특전도 부여된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송기옥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홍석기

다.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 운영

도내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 유관기관을 활용, 현장방문단을 편성하여 기업 및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이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현장밀착형 지원체제인 중소기업 애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역할은 매월 2~4회씩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시책안내 활동, 중소기업자금·기술·인력·판로·공장입지 등 경영전반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데, 본 시책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애로·건의사항 92건, 2011년에는 137건, 2012년 126건을 수렴·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최방주

라. 유망 중소기업 발굴 육성

품질개선,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등을 통해 타 중소기업에 귀감이 되는 선도적인 업체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유망 중소기업지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정대상 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도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하고 공장등록이 된 업체 중에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기술·지역특화, 수출 유망업체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2년에는 387개 업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경쟁력 강화자금 등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은 홍보지원(홍보리플릿 제작 등), 판로지원(해외시장 개척 등), 기술지원(해외규격인증지원, 애로 기술지도 등)과 같은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펼치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홍석기

마.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1) 연도별 재원조달 및 육성기금 조성 현황

1) 지원자금별 재원조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소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조성하여 광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은행 협조융자금 이차 보전(연 1.5~2.0%) 사업인 경영안정자금은 13개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은행과 우리 도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하였다

2)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이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 창업활성화 등에 지원한다.

〈표 2-12〉 연도별 기금조성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내 역			계
	2010	2011	2012	
계	1,900	3,417	3,331	8,648
도 비	400	700	700	1,800
시 군 비	1,500	2,717	2,631	6,848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벤처기업 등에 저리자금 지원

(2) 육성자금 지원실적

2012년에는 총 752개 업체에 929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다.

〈표 2-13〉 연도별 자금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2011			2012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계	1,550	1,061	1,450	1,350	752	929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350	44	242	350	52	276
벤처기업육성자금	40	27	36	40	13	13
중소유통구조개선	10	2	1	10	4	3
경영안정자금	1,050	696	1,082	850	384	550
소상공인창업자금	100	292	89	100	299	87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조신석

1-3.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가.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신기술·신수요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구축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 ·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1) 소상공인 창업교육 운영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절차 및 방법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업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창업교육을 운영하여 매년 창업에 관한 실무지식 전달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4개 과정에 대한 9회의 창업교육을 운영하여 638명이 수료하여 창업 기반을 다졌으며, 83명이 창업을 하였다.

(2) 창업자금 지원

창업자에게는 창업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52개 업체에 27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4〉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현황

(단위 : 개, 억원)

2010		2011		2012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업 체	금 액
86	421	44	242	52	276

(3) 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기술 및 사업성은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신규사업자등에게 입주공간 제공과 경영·기술·마케팅 등의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 11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438백만원을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 운영비로 차등 지원해 오고 있다.

각 지원비는 입주업체의 기술개발·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판로 및 마케팅·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과 보육센터 입주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표 2-15〉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

연 도	창업보육 센 터 수	입 주 기업수	고 용 인원수	매출액 (백만원)
2009	11	138	366	23,201
2010	10	126	425	20,414
2011	9	116	358	17,970
2012	8	103	288	21,528

(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벤처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순천에 있는 전남테크노파크에, 서부지역은 목포에 있는 세라믹센터에 설치되어 있다.

비즈니스센터는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 1인 창조기업 창업·보육거점으로 집중육성될 계획이다.

〈표 2-16〉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현황

연 도	센 터 수	입 주 기업수	고 용 인원수
2011	1	18	18
2012	1	18	18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조신석, 양관승, 홍석기

나. 벤처기업 창업 인프라 구축

(1) 벤처빌딩 건립·운영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신기술·지식집약형 고부가산업 육성에 필요한 집적시설로서 목포시 석현·옥암·산정동 등 일대(2.95㎢)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집적화 및 벤처 생태계 구축을 통해 벤처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벤처기업 집적화를 위해서 지난 2003년도에 준공한 벤처지원센터에

는 현재 45개 기업이 입주했고, 벤처지원센터 진입도로를 개설(L=129m) 하였다. 벤처기업 창업보육을 위해서 1시군 1벤처 빌딩을 설치할 계획으로 2012년말 현재 7개소(목포, 영암, 장성, 곡성, 광양, 영광, 나주)가 운영되고 있다.

(2)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및 경진대회 개최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12년에는 9개 대학 32개 벤처동아리에 15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 벤처동아리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 및 사업화하기 위하여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도내 7개 대학 13개 동아리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7개 팀을 시상 하였다.

대학벤처동아리가 창업할 경우 도에서 지원중인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대학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알선은 물론, 각종 경영 및 기술지도 등 미래 벤처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벤처기업에게 2000년도부터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2012년도에 연리 3.0%의 저리로 지원되며, 2011까지 180업체에 247억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13개 업체 13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17〉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단위 : 억원)

2007까지		2008		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107	140	16	22	25	24	5	22	27	39	13	13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조신석, 양관승

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우리 도에서는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재단법인 형태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였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도비 100억원, 국비 50억원 등 15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2개팀 12명의 임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2001. 7. 31 순천시 장천동(광주은행 순천지점 2층)에서 보증업무를 개시하였고, 2004. 4. 30 목포지점(광주은행 하당지점 4층)을 개소하였다. 이후 2005. 5. 3 화순지점을, 2011. 5. 3 장성지점, 2011. 7. 26 강진지점을 추가로 개소함으로써 지역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 재단은 사업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능력의 한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업체당 8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보증업무를 개시한 2001. 7. 31부터 2008년 말까지 보증실적은 14,756개 업체에 2,90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보증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9년에는 14,476개 업체에 2,075억원을 2010년에는 14,425개 업체에 1,852억원을 2011년에는 11,736개 업체에 2,035억원, 2012년에는 2,183억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영세 제조업체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과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영세업체들이 동 재단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표 2-18〉 전남신용보증재단 연도별 보증실적

(단위 : 개, 억원)

계		2001~2009		2010		2011		2012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업체수	보증액
68,346	11,049	29,232	4,979	14,425	1,852	11,736	2,035	12,953	2,183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송문정

1-4.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가. 지원배경

유통업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이며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른 대형 외국유통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내유통업계 상권 위축과 최근 대기업의 경쟁적인 유통업 참여확대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과 같은 신종 업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규모 슈퍼마켓, 소규모 일반점포 등 중소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어 중소유통업체의 구조개선자금 지원을 통한 현대화, 정보화, 협업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며,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지원개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와 전라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규칙의 지원근거에 따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유통업체에 구조개선자금이 지

원되며, 전문상가 건립, 전문상가 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점포시설개선,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자금 등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사업별 융자규모와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문상가 건립・시설개선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점포시설 개선	: 1억원 이하, 3년거치 5년상환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 1억원 이하, 1년거치 2년상환

다. 지원 방법

도의 사업자금 지원공고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추천받아 서류 확인을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결정 후 기금관리은행과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 대상자에게 대출된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창업지원담당 김영철, 담당자 조신석

1-5.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가. 지원배경

유통시장의 개방과 외국 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출확대, 국내 대기업의 대형마트·SSM 진출, 인터넷 쇼핑몰 등 신업태의 등장 등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으나,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기능 유지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필요하다.

나. 지원개요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2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은 15개소에 총 276억원, 경영현대화 사업은 19개소에 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장옥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표 2-19〉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원실적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비 고
	시장수	금 액	시장수	금 액	
계	175	177,843	105	8,015	
2001	2	7,543	-	-	
2002	7	10,583	-	-	
2003	18	16,594	4	119	
2004	22	32,196	3	132	
2005	18	8,397	2	524	
2006	16	10,305	8	350	
2007	17	15,382	16	2,082	
2008	25	32,947	12	685	
2009	24	21,725	13	1,854	
2010	26	22,171	47	2,269	
2011	13	23,312	31	465	
2012	15	27,560	19	372	

다. 지원 방법 및 실적

중소기업청의 사업지원계획 공고에 의거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신청서

를 제출받아 도의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 중소기업청에 추천하면 최종 지원이 결정되고, 우선순위 결정은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에 의한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송기옥

1-6. 산업인력공급과 노사안정 추진

가.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역사회의 기능개발 보급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기능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 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966. 1. 29.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창립된 이래 2012년까지 총 47회가 개최되었다. 참가자격은 만14세 이상으로 학력과 경력의 제한이 없으며,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게는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되고 전국대회 출전자격이 부여된다. 2012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는 4.12.~4.17.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42개 직종에 총 576명이 참여한 가운데 저마다의 숙련 기능을 겨루었다.

〈표 2-20〉 2012년 전남기능경기대회 개최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개최 시기	장 소	실시 직종	참가 선수	입 상 자					사업비
				계	금	은	동	우수	
4.12~17	순천공고 등 7	42	576	163	44	43	41	35	206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12. 9. 4.~9. 10.(7일간) 대구광역시 전시컨벤션센터(EXCO), 경북기계공고 등에서 48개 직종 16개 시·도 대표 1,87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우리 도는 42개 직종 116명이 참가하여 금 1개, 은 5개, 동 4개, 우수상 4개로 종합 10위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노사협력담당 박남일, 담당자 김행숙

나. 노사안정추진

(1) 산업평화 정착 분위기 확산

우리 지역은 그 동안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노사분규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06년 7건→2007년 7건→2008년 4건→2009년 8건 → 2010년 3건→2011년 3건→2012년 3건)이며,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노사안정에 대한 도민과 근로자, 기업인들의 공통된 인식 변화로 신노사문화 정착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특히, 2012. 4. 14.(토) 화순군 모후산 광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행정기관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남지역노사민정 사회적 책임 실천다짐대회 및 노사한마음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용노동부주관 노사상생협력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5년('08~'1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전남이 산업평화를 지향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

(2) 고용·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개설 운영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공식 홈페이지 개설로 양보와 배려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대내·외 능동적인 정보 전달 서비스체계를 활용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일자리정보 제공으로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 이용자 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열렸다.

(3)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1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국비 105백만원을 지원받아 총 257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사업은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 운영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 캠페인 및 우수사례 홍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HRD)센터 운영 ▲일터혁신 내일은 희망 신바람 사업장 만들기 ▲청년실업해소와 고용창출을 위한 Job-School운영 등 10개 사업으로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노총 전라남도본부, 전남경영자총협회, 전남지역경제인협회, 목포·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4)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풍토를 조성키 위하여 노동단체 및 근로자 화합행사, 노사정 합동세미나 등 10개 사업을 지원 · 추진하였다.

〈표 2-21〉 노사화합 행사추진 실적

사 업 명	사업시기	사업비	비 고
9개 사업		210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화순군민회관)	5. 1	15	행사지원
고용안정 특별활동반 운영(2인1조)	연중	40	고용안정
상반기 근로자 선진지 해외연수(유럽)	5.16~5.26.	80	소양증진
노사 한마음 등반대회(모후산)	4.23.	10	행사지원

노사 이벤트 행사(2기) (제주도 일원 및 제주노총)	3.13.~15(1기) 3.20.~22.(2기)	30	〃
노사정 합동세미나 (보성다빈치콘도)	9.13.~14.	10	소양증진
근로자 특별 순회교육	3월~12월	9	〃
중국 대련시 총공회와 교류지원((초청)	6.11.~6.14.	5	소양증진
노사의 사회적 책임실천다짐 대회(유마사광장)	4. 14.	11	행사지원

(5) 제9회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시상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투자유치와 고용안정을 이루어 잘사는 전남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산업평화상”을 제정, 2004년도에 제1회 시상을 한 이후 2012년에 제9회째를 맞게 되었다.

2012년도 산업평화상은 지난 11월에 시장 · 군수와 노동단체 등에서 3개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를 추천받아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노동조합 운영 및 협조, 근로조건 개선 등의 항목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2013.1.2.(수)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자로는 대상에 한국노총 광양지역지부, 금상에는 호일프랜트(주) 김영표 대표이사, 은상에 (주)에스아이씨 소재한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노사협력담당 박남일, 담당자 박태준

다.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운영

(1) 유통센터 건립 추진 현황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는 우리 도가 친환경 농수축산

물의 61%(면적)를 차지하는 친환경 식품 메카로서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수도권 지역에 판매·유통시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도유지 3,095㎡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BTO방식(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2012. 6. 건립·운영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o 건립 계획 수립 : 2010. 2. 17.

o 건립, 운영 사업 공고 : 2010. 5. 3.

o 사업 시행자 지정 : 2010. 7. 20.

o 기존 가설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 2010. 10. ~ 2011. 1.

o 건축 허가 : 2010. 12. 22.

o 건축 착공 : 2011. 3. 11.

o 실시 협약서(4차 개정) : 2011. 10. 19.

o 건축 준공 : 2012. 6. 15.

o 유통센터 개장 : 2012. 6. 26.

(2) 유통센터 건립 개요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센터」의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o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길 29

o 규 모 : 연면적 12,684.59㎡, 건축면적 1,682.33㎡, 지하 3층, 지상 5층

o 사업비 : 11,473백만원(민간자본 투자유치)

o 사업시행자 :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주)

o 운영기간 : 18년

(3) 유통센터 운영 현황

사업시행자인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주식회사」는 유통센터 준공 시점부터 18년 동안 운영하게 된다. 친환경 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12. 10.부터 1층 전시 판매장 관리 업무는 식품유통과로 이관되어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층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하 2 ~ 3층은 기계실, 주차장 시설, 지하 1층은 수퍼마켓, 간이창고, 지상 1층은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100% 판매장, 지상 2층은 금융기관, 식당, 지상 3층 ~ 5층은 각종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전남 친환경 농수축산물 판매장'은 수도권 지역에 전남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유통 거점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식품 이미지를 제고 하고, 생산농가 및 유통업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노사협력담당 박남일, 담당자 김행숙

1-7. 지방물가안정 추진

가. 소비자물가

2012년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0%로 2011년 소비자물가 4.5% 대비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2.2% 대비 다소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농축수산물,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등이 도·시군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연도별 소비자물가동향

(년평균,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남	3.4	2.0	3.1	3.5	2.7	2.1	2.1	4.8	2.8	3.3	4.5	2.0
전 국	4.1	2.7	3.6	3.6	3.0	2.2	2.2	4.7	2.8	2.9	4.0	2.2

나. 지자체관리 서비스 요금

소비자물가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48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분야별로 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비, 공공 및 개인서비스 등 59개 품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거 최소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 조정하여 물가오름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2012년에는 지자체관리 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업소별 가격정보 비교 공표 및 소비자의 자발적인 물가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하고, 도와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표 2-23〉 소비자물가 월별 동향

(전년 동월비,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	4.0	4.9	4.8	4.5	4.4	4.7	5.0	5.2	4.3	3.6	4.4	3.9
2012	3.4	2.7	2.3	2.3	2.4	1.8	1.1	0.9	1.9	2.0	1.5	1.5

다. 물가안정대책 추진

(1) 물가관리 추진체계 확립

1) 지방물가대책위원회(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명절,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안건 발생 시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인을 참여시켜 물가안정을 기하는데 적극 노력하였다.

2)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설·추석명절이나 연말연시, 여름 휴가철 등 물가가 오를 시기에는 미리 부단체장 책임하에 특별대책상황실을 道와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품귀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방지하는 등 주요 물가관리 체제를 구축하였다.

(2) 물가동향 모니터링 강화

1) 유급 물가모니터제 운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가격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가격 상승시 인하유도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85명(도 6, 시군 79)을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매주 115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 · 제출받아 이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정보 제공 및 물가 안정을 유도해 오고 있다.

2) 개인서비스 품목별·업소별 요금조사 및 공표 실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업소별·품목별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금인상품목·인상우려가 있는 품목은 매월 1회씩 업소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시 · 군정지, 반상회보, 시군 홈페이지, 홍보책

자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고 있다.

3) 지자체관리 개인서비스 품목 가격안정 도모

지자체관리 서비스 품목 중 9개 공공서비스요금을 제외한 지자체관리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업소방문 및 각종 교육·홍보 등을 활용,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자제토록 하였다.

아울러 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시군별 실정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과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 실시로 업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다.

4) 소비자단체의 자율물가감시단 운영

도내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YWCA 등)가 자율적으로 물가감시단을 구성·운영하여 가격정보, 담합행위, 불공정행위조사 및 위반업소를 고발하고 값싼 업소 이용과 부당 인상업소 요금인하를 유도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자율물가 관리활동을 선도하였다.

5) 물가안정 홍보

범도민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자단체 간담회 개최,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협조서한문 발송, 민간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 가두 캠페인 실시, 부당요금 과다징수 등 물가신고(고발)엽서 업소 비치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신문, 방송, 시·군정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 물가동향을 비롯해 업소별 가격 비교 등을 매월 1회 이상 게재하고 수시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물가관리담당 김황희, 담당자 김정미

1-8.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상담실 운영

소비자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 소비생활센터와 전국통합소비자상담센터 '1372'를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소비자단체의 상담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24〉 2012년 소비자고발 및 처리실적

구 분		계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고발	소계	15,517	3,598	11,919
	품질	3,998	579	3,419
	가격	2,887	809	2,078
	계량	379	81	298
	계약	5,253	1,485	3,768
	서비스	1,982	409	1,573
	광고	227	59	168
	상담	498	89	409
	기타	293	87	206
처리	소계	15,517	3,598	11,919
	환불 및 해약반품	1,366	515	851
	수리 및 교환	3,152	926	2,226
	합의배상	1,103	303	800
	계약이행	1,346	390	956
	상담정보제공	8,245	1,404	6,841
	당국고발	99	3	96
	고발취소	54	5	49
	기타	152	52	100

나. 소비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교육 실시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소비생활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25〉 2012년 정보제공 및 교육실적

구 분	내 용	실 적
정보제공	피해예방안내 등 홍보 리플렛 소비자교육교재 언론보도 등 인터넷 정보제공	32종, 7,500부 1종, 1,500부 407건
소비자교육	노인소비자 대상 소비자교육 청소년 등 사회초년생 대상 소비자교육 주부 등 일반 대상 소비자교육	39회, 3,017명 51회, 5,932명 21회, 948명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물가관리담당 김황희, 담당자 천재정

1-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980년대부터 조직되어 생활물자의 직거래 운동 등을 전개해 왔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안전한 먹거리 찾기,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환경보호 및 재활용품 사용 등이 주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농협 등 생산자 협동조합과는 달리 개별법에 의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조합에 대한 공신력의 결여, 조합운영 및 사업 시행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자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담기 위해 생협법을 2010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은 크게 유통(일반), 의료생협으로 구분됩니다.

유통(일반)생협은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게 하면서도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의료생협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 방문 진료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진료 이외에도 양로나 요양 서비스를 함께 해주어 의료 복지 모델로서도 매우 유용합니다.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현황

우리 도에는 24개의 생협이 인가되어 활동 중입니다.

유통(일반)생협은 8개 생협, 13천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은 16개생협, 12천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0. 공공 근로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공공 근로사업은 1998년 IMF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 악화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보험과 같은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에게 소득지원을 하고 일시적인 일자리를 주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실업자,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2012년에 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종 행정 자료 전산화 등

정보화 사업과 공원 및 관광지 정비 등 생산성 사업, 사회복지 향상, 청소년 지도 등 공공 서비스 사업, 쓰레기 분리 처리 등 환경 정화사업에 연인원 2,096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사회복지도우미, 정보화 사업 등 청년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홍보 청년층 참여를 유도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2010년도까지 분기별로 추진했던 사업을 2011년도부터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26〉 연도별 공공 근로사업 참여 인원

(단위 : 명)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8,102	3,036	3,007	2,588	2,898	2,484	1,993	2,096

〈표 2-27〉 시 · 군별 공공 근로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명)

시·군별	사업비	참여인원	시·군별	사업비	참여인원
합계	6,330	2,096			
목포시	547	205	장흥군	161	51
여수시	1,019	324	강진군	99	25
순천시	689	386	해남군	127	47
나주시	379	123	영암군	279	83
광양시	270	99	무안군	248	58
담양군	145	30	함평군	203	67
곡성군	132	38	영광군	159	34
구례군	143	45	장성군	39	8
고흥군	789	171	완도군	202	93
보성군	107	38	진도군	174	55
화순군	279	74	신안군	140	42

다. 공공 근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한 공공근로 사업은 그 동안 보완·개선 과정을 거쳐 청년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특성을 살리는 공공 사업과 생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일자리사업담당 배동진, 담당자 박현주

1-11.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희망근로 후속 사업으로 2010년 8월부터 추진하였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 등 8대 생산적·안정적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상황

2012년 사업비 71억원(국비 36억원, 도비 11억원 시·군비 24억원)을 들여 441개 사업장에서 2,714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이내 주 30시간 이내 이며 평균 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였다.

전남도는 농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번기 때에는 양파, 마늘, 매실 수확 등 농촌일손돕기 추진단을 운영하여 일손이 부족한 취약계층 365농가에 연인원 3,599명을 투입하여 영농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친환경생활공간 주변지역 자전거길 정비를 위해 1일 261명을 투입하여 영산강 주변 자전거길 103km를 정비하였고, 순천 별량 첨산 오감만족 둘레길 조성 등 9군데에 녹색길을 조성하였다.

2012년 시·군별 중점 추진한 사업명세는 <표 2-28>와 같다.

〈표 2-28〉 2012년 시·군별 중점 추진사업 명세

(단위 : 명, 개)

시·군명	인원	사업장	주 요 사 업
합 계	2,714	297	
목포시	153	22	- 부흥산 일주 둘레숲길 조성
여수시	243	14	- 재활용품 선별 작업단 운영
순천시	161	10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도우미
나주시	538	20	- 쪽 공원 조성
광양시	198	15	-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운영
담양군	84	22	- 결혼이주여성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곡성군	48	4	- 섬진강 녹색길 조성
구례군	120	54	- 백세산나물 전시 체험장 조성
고흥군	66	11	-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주변 소공원 정비
보성군	88	5	- 한국차문화 공원 식물 터널 조성
화순군	125	7	-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정비
장흥군	145	5	- 탐진강 수변공원 꽃단지 조성
강진군	120	7	- 다산유적지 복원 사업
해남군	83	9	- 이주여성 통·번역 서비스 지원
영암군	93	17	- 폐자원 재활용 사업
무안군	60	21	- 영산강변 자전거도록 꽃길 조성
함평군	61	9	- 엑스포공원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영광군	78	8	- 영광군 둘레길 조성
장성군	67	5	- 황룡강 생태 체험길 조성
완도군	82	11	- 청산 관광 산책로 조성
진도군	62	14	- 테마꽃길, 쉼터 꽃동산 조성
신안군	39	7	- 해수욕장 수검대 생태공원 정비

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민이 인식하는 단순취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 취업지원,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여 생산적·안정적 일자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일자리사업담당 배동진, 담당자 장명희

1-12. 마을기업 육성 추진

가. 추진배경

마을기업은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침체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역공동의 문제해결과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년 11월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2010년 19개 사업, 2011년 28개(신규 23, 계속 8), 2012년 28개(신규 21, 계속 7)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42억원을 투입하였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행·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공동체에 기초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마을기업의 이러한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담당자 교육과 마을기업 경영 관리자 워크숍 등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컨설팅 기관을 지정하여 조직·운영·회계·마케팅 등 종합적인 컨설팅지원과 아울러 성공한 마을기업의 경영노하우를 공유하는 마을기업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 개최와 마을기업 제품 판매·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2012년 12월 기준으로 63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576명의 고용창출과 2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군별 마을기업 육성현황은 <표 2-29>와 같다.

〈표 2-29〉 시 · 군별 마을기업 육성현황

(단위 : 개)

시군별	합계 (계속사업 제외한 마을기업수)	2012년			2011년	2010년
		소계	신규사업	계속사업		
합계	63	28	21	7	28	19
목포	1					1
여수	6	1		1	3	2
순천	8	1		1	4	3
나주	4	1	1		2	1
광양	3	1	1		1	1
담양	2	2	2			
곡성	4	2	1	1	2	
구례	2	1	1		1	
고흥	3	1	1		2	
보성	4	2	1	1	1	1
화순	4	1	1		2	1
장흥	5	1	1		2	2
강진	3	2	1	1	1	
해남	3	1	1		1	1
영암	4	2	2		1	1
무안	2	1	1			1
함평	3	2	2			1
영광	2	1	1		1	
장성	4	2	1	1	1	1
완도	5	2	2		2	1
진도	2	1		1	1	
신안	1					1

다.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발전

마을기업 사업은 주민들이 자조(自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살리기 사업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피폐해지고 있는 도내의 마을이 공동체내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민들이 공동의 관심사에 함께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지역을 떠난 주민들이 고향에 돌아와 마을기업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안겨주고, 고령 주민들에게 지역을 위해 소일거리와 함께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적 복지도 실현하였다.

도는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매년 20개씩 육성하여 지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잘사는 전남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일자리사업담당 배동진, 담당자 정해상

1-13.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추진

가. 추진배경

청년 미취업자들이 중소기업 인턴 근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인턴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청년실업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2010년 하반기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나. 사업추진 절차

사업 공고 (전남도 및 시·군)	⇨ 참여기업 접수 및 선정 (시·군)	⇨ 인턴신청자 접수 (시·군)
참여기업별 인턴선발 (도내 중소기업)	⇨ 인턴약정 및 지원협약 체결 (인턴, 기업, 시·군)	⇨ 인턴근무 개시

다. 추진내용

2012년 사업비 12억원(도비 6, 시군비 6)을 투입하여 도 및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 중 참여기업을 공모 선정 후, 청년미취업자를 모집하고 청년이 기업을 선택해서 구직신청 후 기업이 자체 채용절차를 거쳐 인턴을 채용하여 3개월간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기업이 인턴을 채용했을 때 인턴 1인당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추가로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부터 청년인턴의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인턴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였다.

라. 추진성과

청년인턴 190명을 채용하였으며 인턴 종료 후에 14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정규직 임용 후 근로 유지 비율이 68%로 청년미취업자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중소기업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와 구인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 2-30〉 청년인턴 채용 및 정규직 채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인턴채용	정규직 전환				비 고
			계	유지	중도퇴사	근로유지비율	
합 계		190	145	98	47	68%	
성별	남	135	104	64	40	62%	
	여	55	41	34	7	83%	
연령별	20대	106	80	50	30	63%	
	30대	84	65	48	17	74%	
학력별	중졸	61	43	35	8	81%	
	고졸	125	99	61	38	62%	
	전문대졸이상	4	3	2	1	67%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일자리사업담당 배동진, 담당자 장명희

1-14.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

가. 추진배경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개방화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생활안정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2012년에 190백만원의 사업비로 간호조무사, 한식조리, 피부미용, 정보처리, 제과제빵, 미용 교육등 연인원 113명에게 취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해당 시·군은 순천, 광양, 담양, 화순, 장흥, 해남, 영광, 완도등 8시·군이다. 직업훈련 방법은 이들 시·군이 지역 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하였고, 훈련 수료생 113명중 40명은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취득 취업과 창업을 하였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훈련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훈련과목이나 취업희망 분야 등을 발굴·홍보하여 전업 지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31〉 시 · 군별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실적

(단위 : 천원, 명)

시·군별	사업비	참여인원	시·군별	사업비	참여인원
합계	190,000	113			
순천시	76,908	27	장흥군	36,300	19
광양시	5,000	1	해남군	9,592	22
담양군	6,300	3	영광군	15,500	9
화순군	20,000	10	완도군	20,400	22

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생계안정과 실업구제 차원에서 시행한 농어업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은 지역에 걸맞는 다양한 훈련과목이나 취업희망 분야 등을 발굴하고 농어민의 직업 훈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업 지원에 중점 추진하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일자리사업담당 배동진, 담당자 박현주

1-15.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이 경제난 극복과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자체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자·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 도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농어촌공동체·문화·예술·관광·환경분야 등에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집중 발굴한 결과 2012년까지 29개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78개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진정한 지역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가. 육성배경

빈부격차·실업률 증가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제반 사회문제 해결책으로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용구조에 진입하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실현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첫째,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

우리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가 미비한 기업을 일정기간 인큐베이팅을 통해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고자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2012년 12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78개를 지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의 포문을 열었고 앞으로도 지역특산물·농어촌체험·공예 등 우리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사회적기업유치 T/F팀 확대개편

SK, 포스코, 등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펼쳐짐에 따라 도내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를 유치하고 사회적기업 발굴 가능성이 높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 유치 TF 7개팀(대기업유치팀, 종교문화예술팀, 사회복지팀, 관광정책팀, 농촌 공동체팀, 어촌공동체팀, 환경개선팀)을 운영해 왔고,

특히 2012년에는 3개팀을(행복마을팀, 마을반찬사업팀, 마을기업팀)을 추가하여 총 10개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현재까지 10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까지 분야별로 사회적기업 발굴 목표와 임무달성에 매진하여 차별화된 유치활동으로 타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판로확보 지원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개발비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94개 기업에 브랜드·로고 개발, R&D,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였고, 각종 박람회 도내 축제 판촉전에 참가하여 사회적기

업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수도권 대형유통매장(신세계백화점 등)과 연계한 남도판촉전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판로확보에 있어서도 큰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남 사회적기업 제품 품평회를 열어 전문가의 평가와 코칭으로 제품 확로확보에 박차를 가하였고 사회적기업 공동 브랜드 “녹색나눔”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여 제품유통망을 활성화하는 한편 생산제품모음이란 책자도 발간하여 공동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제품 공신력을 높여 사회적기업 홍보와 함께 제품 판로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넷째,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지원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남사회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민관합동 워크숍·네트워크 구축행사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간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예비사회적기업에 전수함은 물론 서로간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더불어 민관협의체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남네트워크’를 창립하여 종교계· 정계, 제계 등 각 분야 53명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강화를 위해 전남도민의 사업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기업의 실태조사, 각종 기업홍보 및 제품구매 캠페인, 판촉지원 등을 전개하였다.

또한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겸비한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고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였고,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 학교를 신설하여 32여명의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마을기업·농어촌공동체 육성, 커뮤니티비지니스, 자활공동체사업 등 관련부처에서 시행 중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모델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확대를 통해 보호된 시장 영역을 제공하는 한편, 유통망 구축을 통한 제품판로를 확보하고, 향후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제공, 프로보노를 통한 전문성 지원, 홍보·마케팅·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함은 물론,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동력으로 연결하여 대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기업이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의 중간영역에서 사회통합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관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것이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일자리정책담당 박종열, 담당자 오경국, 정혜진

2.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

2-1. 2012년 수출 현황

도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수출기업의 자력 수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마케팅과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29억 4천만원을 투입, 30개 통상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172개국에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4.8%가 증가한 419억불을 달성하였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 해외통상 환경 악화로 '12년도에 전국적으로는 전년대비 1.3%가 감소하였지만, 전남은 4.8%가 증가하였고, 전국수출 비중은 7.6%로 7위를 차지하였다.

수출 주요품목은 석유제품 37.3%, 석유화학 34.4%, 철강제품 12.7%, 수송기계 10.4%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26.5%, 싱가포르 8.9%. 일본 7.8%, 홍콩 6.8%, 미국 5.6%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수출 450억불 달성을 위해 31개 통상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농수산물 수출 3억불 달성을 위해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강화 및 해외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 2-31〉 수출실적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 산업별	'10년 실적	'11년 실적		'12년 실적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계	30,415	39,992	31.5	41,903	4.8
공 산 품	30,216	39,728	31.5	41,612	4.7
농 산 품	95	124	30.5	135	8.8
수 산 물	104	140	34.6	156	11.4

※ 2012년 전국수출액 5,480억불(△1.3%) 대비 전남 수출액 비중 : 7.6% (전국 7위)
※ 2012. 12. 31. 한국무역협회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용덕

2-2.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가. 무역교류단 파견

신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규바이어 발굴, 시장조사, 상품홍보, 수출상담, 수출계약 등을 지원하여 신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년 3~5회 파견한다.

무역교류단은 8~10개 업체 내외로 구성되며, 업체 선정은 현지 시장성 평가와 수출능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이 평가되고,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나 공동체 기업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업체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참가기업에는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시장조사비 전액과 항공료 일부를 지원받게 되고, 항공료 일부 및 숙박비, 체재비는 기업이 부담한다.

〈표 2-32〉 무역교류단 활동 실적

연도	교류단명	기 간	지 역	참가 업체	성과(천불)	
					상담액	계약액
2010	계	5회		38	49,577	42,082
	인도 교류단	5.17 ~ 5.22	뭄바이, 델리	5	11,650	4,155
	중국 교류단	7. 5 ~ 9.15	상해, 항주, 북경	8	5,492	5,492
	베트남, 필리핀 교류단	9.29 ~ 12.24	호치민, 마닐라	12	2,935	2,935
	독일 교류단	12.12 ~ 12.17	보훔, 오버하우젠	3	26,050	26,050
	우즈벡, 카자흐 교류단	12.6 ~ 12.11	알마티, 타쉬겐트	10	3,450	3,450
2011	계	5회		37	33,773	10,904
	인도 교류단	5.2 ~ 7.23	뭄바이, 바이작, 코친	9	1,716	1,716
	중국 교류단	5.23 ~ 5. 27	성도, 북경	8	4,258	4,258
	중국 교류단	9.19 ~ 9.24	샹하이, 우한, 광저우	9	890	890
	남미 교류단	10.24 ~ 11.3	브라질,페루,아르헨티나	8	7,686	4,040
	동남아 교류단	11.24 ~ 12.2	싱가폴,베트남,홍콩	3	19,223	2,800
2012	계	3회		23	9,330	4,043
	중앙아시아 교류단	6.11 ~ 6.16	우즈벡, 카자흐스탄	8	2,548	185
	중국 교류단	8.27 ~ 8.31	북경, 심양	8	2,762	1,508
	인도 교류단	10.8 ~ 10.13	뭄바이, 뉴델리	7	4,020	2,350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용덕

나.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우리 도내 수출상품(농수산식품,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도내 수출 중소업체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무역 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수출업체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등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다.

2012년에는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총 4회(단체 3회, 개별 1회) 개최하여 32백만불의 수출 상담계약을 성사시켰다.

〈표 2-33〉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현황

연도별	상 담 회 명		기 간	상담업체	초 청 바이어	상담계약액 (천불)
2010	계		3회/연중	192	65	27,735
	단체상담	농수산식품	4.13~4.15(3일)	54	10	5,549
		농수산식품	6.28~6.30(3일)	61	10	4,749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5~10.27(3일)	55	14	7,323
	개별상담		연 중	22	31	10,114
2011	계		3회/연중	204	67	27,281
	단체상담	농수산식품	4.12~4.14(3일)	60	10	2,203
		농수산식품	5.30~6. 1(3일)	4	4	-
		농수산식품	7.27~7.29(3일)	70	15	9,940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20~10.22(3일)	50	15	7,130
	개별상담		연 중	20	23	8,008
2012	계		3회/연중	207	65	31,971
	단체상담	농수산식품	3.27~3.29(3일)	64	11	3,490
		농수산식품	6.19~6.21(3일)	60	11	3,700
		대한민국농업박람회	10.4~10.6(3일)	60	14	8,000
	개별상담		연 중	23	29	16,781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정창모

다. 국제박람회 참가

우리 도내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 바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유명 국제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동경식품박람회 등 총 5회에 걸쳐 38개 업체의 단체박람회 참가지원과 7개 업체에 대한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표 2-34〉 박람회 참가현황(2012)

박람회명	기 간	참가업체수	계약액 (천불)	비 고
계		45	9,652	
동경식품박람회	3. 6 ~ 3. 9	8	3,200	
대만식품박람회	6.27 ~ 6.30	8	2,313	
말련식품박람회	7.11 ~ 7.13	8	1,260	
파리식품박람회	10.21 ~ 10.25	6	24	
상해식품박람회	11.14 ~ 11.16	8	2,720	
개별박람회참가	연 중	7	135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주용석

라. 농수산물 해외 판촉 추진

우리 도내 농수산식품의 시장진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수출망 구축을 위해 해외 대형유통마트와 연계하여 판촉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판촉을 추진하여 487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표 2-35〉 2012년 해외판촉 추진현황

판촉지역	기 간	참 가 업체수	수출액 (천불)	비 고
계	4회	40	487	
미국(LA)	3.29 ~ 4.15	20	109	
중국(웨이팡시)	9.5 ~ 9.10	7	107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12.14 ~ 12. 23	5	78	
중국(북경)	1.11 ~ 1.20	8	193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마. 전라남도 해외수출에이전트 운영

농수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의 체계적 판촉·홍보활동 및 시장정보 수집 등을 위한 해외마케팅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전남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독일, 대만, 홍콩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구매력과 신뢰성이 높은 해외바이어 50명을 전라남도 해외 수출에이전트로 위촉하여 15,259천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해외 수출에이전트는 전남 농수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해외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표 2-36〉 해외 수출에이전트 운영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지정인원(명)	19	26	40	50
수출액(천불)	5,061	7,211	14,108	15,259
지원액(백만원)	145	119	211	205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주용석

바.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국내 판매 위주의 내수기업과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수출초보기업을 조기에 수출유망기업으로 전환시켜 향후 전남의 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부터 매년 10개 기업을 지원하여 2020년까지 총 100개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무역전문가가 선정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이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수출준비단계에서는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영상 제작이나 QR코드가 탑재된 스마트 카탈로그 제작 등을, 2단계에서는 바이어 발굴, 해외상품 홍보 등을, 3단계에서는 인콰이어리 응대 및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표 2-37〉 수출기업화 지원 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계
지원 업체수	10	7	10	27
지원금액(백만원)	150	100	50	300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용덕

사. 친환경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친환경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특화된 해외마케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수출 가능성은 있으나 수출 초기단계의 위험부담으로 수출업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새로운 수출품목·수출국 개발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갓김치, 버섯류, 뽕잎음료, 한과류, 유자차, 건전복 등을 생산하는 6개업체가 참여하여 중국, 미국, 홍콩 등에 4,041천불의 수출성과를 거양하였다.

〈표 2-38〉 2012년 친환경농수산식품 해외마케팅사업 현황

추진업체	품 목	수출국	수출액(천불)	비 고
6개 업체	6품목	3개국	4,041	디자인개발, 박람회 참가 등
㈜나래식품	갓김치 등	미국	65	
푸드코리아	버섯류	중국	92	
동의나라	뽕잎음료	일본,중국	132	
㈜안복자한과	한과류	미국	44	
한성푸드영농조합	유자차	중국	3,642	
글로리아수산	건전복	홍콩	66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정창모

아. 식재료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추진

세계규모의 식품시장인 중국 및 아시아에서 대량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식재료 수출의 중요성이 부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한식세계화 추진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우리도 우수농수산 식재료의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폴, 홍콩, EU, 중동, 남미시장을 겨냥해 추진하여 2012에 5품목에 대해 4개국에 수출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표 2-39〉 2012년 식재료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현황

추진업체	품 목	수출국	수출액(천불)	지원내용
계	5품목	4개국	1,845	
미성영어조합	굴비	미국	127	바이어초청, 판촉 및 상품개발
백양영농조합	청국장	미국	279	현지 판촉 및 상품개발 등
신성식품	조미김	캐나다,중국	414	현지 판촉 및 상품개발 등
서진산지유통	양배추,배추	대만	1,025	현지 판촉 및 상품개발 등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주용석

자. 공산품 개별 바이어 초청 지원

공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바이어를 초청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의 자력 수출 능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공산품 관련 기업이 무역 교류단 및 박람회 참여를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전남에 초청, 개별 면담 및 현지 방문으로 기업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수출계약을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수출선을 유지하여 수출 확대를 꾀하기 위한 취지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하였다.

올해 사업 성과로는 8개 기업이 바이어를 개별 초청하여 4,280천불의 수출 상담계약을 성사시켰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홍양현

차. 공산품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공산품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수출경쟁력 제고, 바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국제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해외박람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개별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사업과 함께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올해에는 2개 기업의 단체박람회 지원과 9개 기업의 개별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6,540천불의 수출상담계약을 성사시켰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홍양현

2-3.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가. 전남형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육성

수출 중소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소형 수출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3기업씩 지원하여 2020년까지 30개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전남형 차세대 일류상품 생산기업이란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 상시고용 인력이 80인 이상, 수출은 총매출액의 50% 이상, 수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출국이 5개국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력이 40인 이상이며, 수출은 매출액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44〉 연도별 전남형 차세대 일류상품 생산기업 지원현황

구 분	2011	2012	계
지원업체	3	3	6
지원액(백만원)	150	240	390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용덕

나. 수출상품 디자인개발 지원

제품은 우수하나 최신 소비 경향에 맞는 디자인 개발 능력이 열악하여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 디자인개발을 지원하여 상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수출상품에 대한 제품·용기·포장 디자인개발이며, 참여기업과 디자인전문기관간 협약체결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추진한다. 제

품·용기 디자인개발은 최대 15백만원, 포장 디자인개발은 최대 7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디자인 결과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우수 디자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도 지원금 외에 초과 비용은 업체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상반기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업체규모, 수출액, 상품화 가능성, 판매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표 2-41〉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계
지원 업체수	15	15	16	24	70
지원금액(백만원)	133	126	140	180	579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이창용

다. 무역전문교육 운영

무역실무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출에 필요한 기본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수출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자력수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2005년 85명, 2006년 58명, 2007년 107명, 2008년 134명, 2009년 52명, 2010년 178명, 2011년 185명, 2012년에는 175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영문서식 작성, 환리스크 관리, 바이어 발굴, 마케팅전략 등에 대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강의하여 중소수출업체로부터 매우 실용성 있는 교육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이창용

라. 수출중소기업 통상닥터 지원

무역실무 능력이 부족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중소기업 수출도우미제 운영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부터 통상닥터제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통상닥터제 사업은 전문인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관련 노하우가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위촉하여 다양한 수출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지원방법은 통상닥터를 권역별로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1명씩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기업을 순회 방문하여 통·번역, 바이어 발굴, 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선정된 업체는 기업의 별도 부담 없이 무료로 통상닥터의 지원을 받으며 2010년 37개 기업의 550건, 2011년 69개 기업의 1869건, 2012년 70개 기업의 1,986건에 달하는 수출애로사항을 처리하였다.

2013년도에도 수출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이창용

마. 인터넷 무역 지원

(1)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인터넷 무역 사업은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수출기업을 글로벌 인터넷무역거래(B2B) 사이트와 연계,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문홈페이지 제작 홍보(ECPLAZA내), e-거래제의서 작성, 인콰

이어리 처리, 해외상품 홍보지 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모두 10개 기업(공산품 5, 농수산품 5)을 국내·외 유명 무역포털사이트에 등록 지원하여 수출상담액 1,784천불 중 680천불 계약을 달성하였다. 2012년 사업은 9개 기업(공산품 3, 농수산품 6)을 등록 지원했으며, 2013년도 사업은 현재 기업선정을 마치고 사업 추진중에 있다.

(2) 전라남도수출정보망 운영

수출기업 정보 및 각종지원시책 등을 제공하는 수출관련 종합정보망(www.jexport.net)을 2005년부터 구축하여 수출 중소업체와 수출관련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로 능동적인 행정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남주희

바. 해외홍보물 제작 지원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홍보용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을 통해 해외무역교류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시 유망상품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데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70백만원,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품 카탈로그 제작비로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수출촉진에 기여하였다. 2013년도에도 고품격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수출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남주희

사. 수출중소기업 통 · 번역비 지원

통상 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수출중소기업과 수출전환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번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제품설명서, 협약서 등 수출관련 서류 번역과 바이어방문, 수출상담, 계약체결에 필요한 전문통역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2013년도에는 업체당 3회 이내, 1백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42〉 통번역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계
지원 업체수	16	15	9	11	51
지원금액(백만원)	6	9	7	8	30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남주희

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산물 수출농가(업체)의 수출촉진 및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부터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선농산물에 대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물류비의 연도별 세부적인 지원품목은 다음과 같다.

·'10년 30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기타(4)

·'11년 30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기타(4)

·'12년 30품목 : 채소류(13), 과실류(4), 화훼류(7), 버섯류(2), 기타(4)

〈표 2-43〉 최근 5년간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

구분 \ 년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액 (백만원)	1,774	2,474	2,854	1,890	2,405
지원율(%)	8 (농6,업2)	8 (농6,업2)	·업체 : 표준물류비의 5 ·농가 : 수취가액의 6	·업체 : 표준물류비의 5% ·농가 : 표준물류비의5~25%	·업체 : 표준물류비의 5% ·농가 : 표준물류비의15~20%
분담율(%)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50 시군 50	도 40 시군 60	도 30 시군 70
품 목	29개 품목	30개 품목	30개 품목	30개 품목	30개 품목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농수산물수출담당 안병렬, 담당자 조자옥

자. 수출보험료 지원

수출 중소기업들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수출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4개(단기수출보험, 농수산물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종목 중에서 기업당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출 중소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여 수요에 맞게 보험종류를 조정하였다.

〈표 2-44〉 연도별 수출보험료 지원 현황

구 분	2010	2011	2012	계
지원업체	76	72	87	235
지원액(백만원)	150	130	130	410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김용덕

2-4.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가.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과 기술력 향상으로 우수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시장을 개척토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 각 국가는 자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기술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인증마크를 부착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불법 유통 할 시에는 과태료, 벌금 또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전문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자체적인 인증획득이 어려워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년 초에 사업공고를 통해 신청기업을 모집하고, 기업규모, 수출액, 기술력, 도정 시책참여 등을 평가하여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2013년부터는 해외종합마케팅사업 확대 등으로 동 사업을 제외하였으나, 향후 수요 증가시 다시 지원할 계획이다.

〈표 2-46〉 해외규격인증 획득비 지원 실적

구 분	2010		2011		2012		계	
	업체	인증	업체	인증	업체	인증	업체	인증
지원현황(개)	9	12	6	10	6	8	21	30
지원금액(천원)	24,546		26,027		12,989		63,562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이창용

3.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확대 추진

3-1.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가. 서울 창동「전라남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운영

서울시와 우호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4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하나로 클럽」내에 약 248㎡규모의 공간을 임대 받아, 전라남도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운영실적 및 성과

전남의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대표 공동브랜드인 남도미향 38업체 52품목을 비롯 총 62개사 90개 품목을 전시·판매하여 1,119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도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수도권지역 판매망 확보와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최방주

3-2.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사업 추진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도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판로 문제, 특히 공공시장 판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4월) 공공구매 상담회는 51개 기업, 35개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가 참여하여 총 297회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회 참석한 기업에서는 자사 납품희망 제품을 공공기관 계약실무자 등에게 홍보하고, 공공기관에서는 물품에 대한 궁금사항 문의 및 납품에 필요한 절차 등 상호 상담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나. 중소기업 우수제품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지원 사업

소비자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인터넷 시장에 도내 중소기업제품이 입점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

100여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제품이 오픈마켓에 입점할 수 있도록 제품사진촬영, 제품사양페이지 제작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전남의 특산품인 천일염과 친환경농식품 등의 판매실적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 938백만원 매출을 달성해 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신문 공익광고 사업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수제품을 홍보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도내 유망중소기업이나 기술인증보유기업 등 85개 기업을 선정하여 단순제품 홍보를 지양하고 기업탐방, 기업대표 인터뷰 등을 기사화하여 지역신문 6개사에 공익광고를 실시해 제품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라.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으로 나누어지며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하고 있다. 도에서는 2009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09년 25개, '10년 21개, '11년 20개, '12년 15개 기업을 인증 지원하여 도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창출과장 설인철, 판로지원담당 정한권, 담당자 최방주

3-3. 공예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우리 지역의 남도미를 살린 새로운 개념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공예 종사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예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 전남 및 전국 공예품 경진대회

새로운 공예제품 개발과 아이디어 제품 발굴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라남도 공예품 대전과 전국 공예품 대전 참가유도를 위해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남 공예대전을 전라남도 목공예센터에서 관광기념품 공모전과 함께 개최하였으며, 공예대전에 55점이 출품되어 25점이 입상하였다.

또한 전남 공예대전에 입상한 25점을 제42회 전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하여 지식경제부장관상 등 총 18점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전국 최초로 5년 연속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홍양현

나. 남도공예문화축제

공예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넓히고 잠재 수요자 창출 및 판매 촉진을 위해 2006년부터 남도공예문화축제를 전남공예조합과 개최하고 있다.

7회째를 맞은 올해는 진도 명량대첩 행사와 공동개최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행사기간 중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예 신상품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유익한 한마당이 되었다.

도내 15개 공예업체가 참가하여 전시판매, 제작시연, 체험 등을 통해 49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도자기 빚기와 목공예 로봇 만들기, 천연염색 물들이기 체험 등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홍양현

다.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

영호남의 공예문화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우호증진을 다지고 우수 공예품 판매촉진과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북, 경북,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등 8개 시·도가 매년 순번을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주관으로 8개 시·도 공예인들이 참가하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별 공예품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공예품의 우수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우리 도는 7개 기업이 참여하여 30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13년도 개최지로 경상남도를 결정하였다.

〈표 2-48〉 연도별 개최지역

2002.5	2002.1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경남	전남	부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대구	울산	전남	부산	광주

※ 개최 시도는 시도 공예조합이사장 합의로 결정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홍양현

라. 공예품 해외판촉 행사

공예품은 그동안 국내행사에만 치중하였으나 도내 우수 공예품의 해외 전시 판촉행사를 통해 우리도의 공예품을 널리 홍보하고 공예분야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시장개척을 위해 2010년부터 공예품 해외 판촉행사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홍콩 차이나소싱페어에 10개 기업이 참가하여 597천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냈다.

우리 도는 공예품 해외판촉행사가 공예품 판로확대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통상지원담당 김준성, 담당자 홍양현

4. 지역과학기술 역량 제고

4-1. 지역 R&D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원

가. 개 요

지방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 분야를 대상으로 R&D클러스터 구축, 기술개발 활동,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거점기관 육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도에서는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나. 사업내용

(1)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

임상백신연구개발사업은 연구기관 집적 및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산·학·연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지역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남대학교(화순 전남대학교병원)가 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지역 생물의약분야의 국제적 R&D역량을 확립하고 감염질환 및 암 등의 궁극적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고, 백신 관련 기반 및 원천기술의 선진국 수준 확보를 위해 8년('05. 5~'13. 6) 간 총 201억원을 투입하여 백신보조제 개발, 암 백신 개발, 기초백신 제조기술 개발, 바이러스백신 개발 등 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 연구 활동사항

① 1세부과제(백신보조제 개발)

플라젤린adjuvant 단백질 공학 및 기반기술 개발, 생약기반adjuvant

활성 강화물질 개발, 플라젤린을 이용한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 치료/예방 백신 개발, 점막백신 및 adjuvant 원천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② 2세부과제(암백신 개발)

난치성 암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험관 및 소동물에서 새로운 암백신 치료법을 확립하고,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임상 분야에서 난치성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암 백신 생산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③ 3세부과제(기초백신 제조기술 개발)

기초 백신에 대한 공정개발 연구와 제조기술 기반 구축을 통하여 차세대 기초백신 생산의 기술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후보 백신을 발굴하며, 이를 기반으로 성인용 Td백신의 임상 3상 시험 진입 및 DTaP백신의 비임상 시험 완료를 추진하고 있다.

④ 4세부과제(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한 바이러스 백신 개발)

세포 배양 기반 기술 확립을 통해 바이러스 백신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의 로타바이러스 백신 제품화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3) 주요 성과

콜레라균에 의해 감염되는 콜레라는 높은 치사율과 함께 전염성이 높은 질병으로 사람들의 여행활동에 따라 확산이 되고 있어 국내 유입률이 높은 질병이다. 이에 전염성 질환의 이동형태를 추적하고 전파경로를 증명, 세계적 권위의 Nature지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화로 인한 면역억제 유전자의 생체 내 기능을 규명하여, 현재 환자 치료용 약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의 세포 치료 기반 기술제공 및 치료영역 확대가 기대되어 세계적 권위지인 Gastroenterology지에 발표되었다. 또한 패혈증 비브리오균 유래 플라젤린 단백질을 이용

한 점막면역 강화제를 개발, 감염질환, 항암 및 피임백신 등의 각종 유효 백신개발에 필요한 보조제로서 제공될 수 있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이 기대되며, 관련 특허의 국내·외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독감 바이러스에 플라젤린 보조제를 적용하여 산업화를 위한 비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난치성 암치료를 위해 세포치료 전문회사인 ㈜박셀바이오를 창업하였으며, 화순생물의약연구센터와 MOU를 통한 GMP제조소 완공, 임상시료 생산과 함께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성인용 Td백신의 임상2상 진행도 원활하게 수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곧 3상 진입과 함께 제품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다. 또한 프라운호퍼 IME연구소와 프라운호퍼 IZI연구소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권용선

4-2.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가. 개 요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과 기업 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활용(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 측정 장비의 구축·운영), 연구개발(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인력양성(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창업지원(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기술개발 사업화(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마케팅(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리 도내에는 4개의 지역혁신센터가 운영중으로, 차세대소재 퓨전그린테크놀러지 연구센터(순천대),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목포대),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순천대), 중화학설비안전진단센터(전남대 여수캠퍼스)가 있다.

나. 추진상황

(1) 차세대소재 퓨젼그린테크놀러지 연구센터(순천대 RIC)

차세대소재와 IT 퓨전기술인 인쇄전자 특화센터로써, 지역의 저부가가치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을 점차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인쇄전자분야의 소재산업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쇄전자 원천기술 확보를 통하여 광양만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인쇄전자 미니클러스터로 성장시키는 핵심코어역할을 수행하고자 10년간('05. 3~'15. 2) 121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실적으로는 순천대 RIC에 구축된 그라비아 등 22종 장비를 통하여 (주)CNL Energy 등 35개사 지원, R2R 그라비아-스크린 인쇄를 혼용한 플렉시블 저가배터리개발 및 인쇄전자를 위한 정밀 롤시스템개발 등 5개 분야의 기술개발, 애로기술해결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순천대 RIC의 인쇄전자 인프라(장비,기술,인력)를 지원하여 수행하는 인쇄전자원스톱서비스 수행 10건, 아기기저귀적용 인쇄RF습도센서 제조방법 등 51건의 특허출원, 투명전도막 및 그 제조방법 등 15개 특허등록, (주)파루 등 89개 기업에 326회에 걸쳐 기술지도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기업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향상 및 당초 '05년 (주)파루 1개의 기업에서 '12년 (주)줌톤 등 6개사의 인쇄전자 미니클러스터 구축완료 하였고, 향후 사업기간내 10개사 이상의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목포대 RIC)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고도화와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의 조기구축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한 산업 인프라 혁신역량 강화로 전방위적인 조선산업 지원센터의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10년간('06. 3~'16. 2) 155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실적으로는 대한조선의 180K Bulk Carrier 고유선형 개발 등 연구개발 61건, 특허출원 19건, 산적화물선 구조해석기술 등 기술이전 12건, Rudder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등 70개 기업에 기술지도가 이뤄졌으며, 선박시운전 장비와 WPS 인증장비, 기계가공실 등을 구축 운영하여 서남권 중형조선소들의 비용 절감 효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개선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3)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 센터(순천대 RIC)

희유 전략자원 중 국내 자원 자립화에 파급효과가 큰 Mo, Co, Ti, Ma, Ta, Nb, Ferro-alloy, REE, 관련 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 지원과 국내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10년간('08. 8~'18. 2) 142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실적으로는 비피시(주) 등 35여개사(기관)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희소금속 용해·가공 장비 30종 구축, 산학공동 연구개발과제 23과제, 기술지도 161회, 기술이전 10건, 특허 54건 및 개발기술사업화 5건을 통하여 75억원의 매출 증가와 2개사 기업유치·창업 등 광양만권이 희소금속 실용화센터로 희소금속 부품소재 특화산업 단지 육성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4) 중화학설비 안전진단센터(전남대 여수캠퍼스 RIC)

2009년 7월 신규 RIC 사업으로 선정되어 석유화학 및 제철, 조선의 안전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컨설팅과 설비안전진단 산업의 안전진

단 기술 및 시스템 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10년간('09. 8~'19. 2) 138억원이 투입된다.

주요 실적으로는 위상배열 초음파 탐상장비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24종을 구축하였고 각종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장비공동활용 네트워크 구축과 설비진단장비 전문가 교류 활성화로 설비 안전성강화 및 생산성 증대와 스마트 플랜트 엔지니어 양성 사업으로 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성화 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김수일

4-3.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지원

가. 개 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주체가 되어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연계, 마케팅,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이나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특화자원을 발굴, 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9개 사업으로써 친환경 축산식품유통시스템 강화사업(순천대), 진도개 명견화 사업(전남대), 천연염료 기능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동신대), 전복산업육성사업(해양바이오산업센터), 녹색해양기자재산업체제 구축사업(목포해양대), 약용자원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목포대), 전남 황칠소재산업 가치사슬 연계 강화사업(천연자원연구원), 장

흥 해조류자원의 파워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목포대),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개발 및 미(美)산업화(순천대)이다.

나. 추진상황

(1) 친환경 축산식품유통시스템 강화사업(순천대학교 친환경축산사업단)

외국의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순천대학교 친환경축산사업단에서는 전남도와 8개시군(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순한 한우사업단 등 참여기업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역사업단을 구성하여 1, 2단계로 단계별 각 3년씩 총 6년간(2007.7.1~2013.2.28) 국비 64억원, 지방비 19억원 등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주요성과로는 총 매출액 1,408억원, 고용창출 331명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무항생제 등 친환경축산물의 인증지원 764건(전남의 38%)을 받았고, 청한우 곰탕, 청한우 육포 등 친환경 가공제품 6건을 개발하여 이마트 및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망에 진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친환경 축산 전문인력양성교육, HACCP 인증 교육 등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2,369명 양성하였으며, 녹차 및 유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사료첨가제 개발과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2) 진도개 명견화 사업(전남대)

이 사업은 우리나라 명견인 진돗개 혈통관리 및 유통망 구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하여 3년간 1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였고, 2011년부터 2014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진도군과 진돗개사랑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21명, 매출 504백만원, 기술개발 3건, 기업지원 7건, 인력양성 42명, 창업실적 6건, 지식재산 등록건수

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3) 천연염료 기능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동신대)

이 사업은 전통색채 재현을 통한 천연염료 및 염색 기술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및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해 2009년에 시작하여 3년간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동신대학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나주시와 전방주식회사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13명, 매출 1,015백만원, 기술개발 4건, 기업지원 7건, 인력양성 37명, 창업실적 7건, 지식재산 등록건수 3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4) 전복산업육성사업(해양바이오산업센터)

이 사업은 전복소재 및 기능성 식품 기술개발,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한다. 전라남도 해양바이오산업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완도, 진도군과 ㈜청산바다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37명, 매출 7,410백만원, 기술개발 9건, 기업지원 39건, 인력양성 60명, 창업실적 2건, 지식재산 등록선수 3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5) 녹색해양기자재산업체제 구축사업(목포해양대)

이 사업은 녹색 해양기자재 관련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 부품선급 인증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된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목포시, 영암군, 신안군과 한국선급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47명, 매출 100,382백만원, 기술

개발 4건, 기업지원 21건, 인력양성 18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6) 약용자원고부가가치 산업화 사업(목포대)

이 사업은 약용자원 관련기업과 연구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하여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3년 2월에 1단계사업을 완료한다. 목포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화순, 무안군과 전남생약조합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45명, 매출 18,912백만원, 기술개발 11건, 기업지원 85건, 인력양성 115명, 창업실적 5건, 지식재산 등록건수 8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7) 전남 황칠소재산업 가치사슬 연계 강화사업(천연자원연구원)

이 사업은 황칠의 체계적 효능연구 및 인증형 제품화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4년 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 한다. 전라남도 천연자원연구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해남, 장흥, 완도군과 ㈜고려황칠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11명, 매출 12,420백만원, 기술개발 8건, 기업지원 8건, 인력양성 90명, 창업실적 1건, 지식재산 등록건수 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8) 장흥 해조류자원의 파워브랜드화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목포대)

이 사업은 해조류자원의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4년 2월까지 1단계사업이 추진 된다. 목포대학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장흥군과 ㈜팜넷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17명, 매출 7,320백만원, 기업지원 13건, 인력양성 94명, 지식재산 등록건수 1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

(9) 고흥석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개발 및 미(美)산업화(순천대)

이 사업은 석류 헬스케어 맞춤형 식자재 소재 개발 및 석류추출액을 활용,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15년 2월까지 1단계사업을 추진한다. 순천대학교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고흥군과 에덴식품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실적으로는 고용창출 60명, 매출 62,480백만원, 기술개발 6건, 기술이전 4건, 기업지원 7건, 인력양성 26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권용선

4-4.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가. 개 요

연구인력, 설비, 정보 등 우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신기술의 연구·개발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산학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이 있다.

나. 추진상황

(1) 산학 공동기술개발사업

1993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 추진 시 소요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

(국비 50%, 도비 25%, 기업 25%)로 출연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직접비 및 간접비를 소요비용의 75%, 1억원이내까지 지원한다.

2012년 주요성과로는 지식재산권 40건, 시제품 78건, 상품화 36건, 공정개선 45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는 63개 과제 사업에 총 4,120백만원이 투입되어 연구과제 진행 중이며, 2013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2013년도 부터는 산학 공동기술개발 사업이 R&D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첫걸음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되어 업력 및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정부 R&D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다가 2007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로 사업비의 75%범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R&D사업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R&D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2012년 주요 성과로는 지식재산권 8건, 시제품 17건, 품질향상 5건, 기술개발 7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에 선정된 6개 사업과 전년도 계속사업 5개 사업을 포함 총 11개 사업에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며, 신규사업으로 기술혁신 역

량부족, 성장 정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하는 도약기술개발로 지원되게 된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노향미

4-5. 중소기업 현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 개 요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은 시·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창출 등 산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도가 2007년부터 추진하는 R&D 공모사업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 추진상황

우리 도와 시군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으로써 2012년도에 여수시 등 4개 시·군의 7개 과제를 선정, 667백만원의 사업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32개 기업에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한 결과 기업체들의 매출액이 221억원 증가되었고, 54명의 고용 창출과 30건 특허등록 등의 성과를 거양하였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산학협력담당 김진홍, 담당자 노향미

4-6. 전남기술이전센터 운영

가. 사업개요

도 소속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의 원활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나. 사업내용

전남기술이전센터에서는 기술공급기관(농업기술원, 산림자원연구소 등)으로부터 유망특허기술자료를 확보하여 기술정보은행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기업체에 기술 및 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연계,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여 우수기술 발굴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다. 추진상황('08~ '12)

도 산하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이전 137건 96.6억원, 기업투자유치 5건, 기술사업화 지원 128건, 기술금융연계 지원 340.3억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전국 평가에서 매년 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전라남도 기술정보은행'을 통해 특화센터, 대학,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 3,071건에 대한 특허기술 정보를 지역 기업에 이전시켜 사업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연구개발담당 박천재, 담당자 박민철

4-7. 지역지식재산 경쟁력제고사업 지원

가. 사업개요

지식재산센터내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컨설턴트 7명이 상주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서 권리화 ·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One-stop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방향제시, 국내외 출원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2년 총사업비는 1,790백만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Matching Fund(국비 50%, 도비 50%)로 투자하여 2008년 1월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을 시작으로, 브랜드 및 디자인가치제고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전남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나. 사업내용

(1) 특허종합지원사업 : 지식재산경영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기술개발 방향제시 및 특허분쟁 사전예방을 위한 선행 기술조사,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PM(특허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3〉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계	컨설팅	선행기술 조사	특허비용 지원 (국내외)	맞춤형 PM	홍보물 제작	시뮬레이션 제작
2010	480	949	562	255	104	8	10	10
2011	1,000	1102	550	316	204	8	11	13
2012	940	1093	603	276	188	6	10	10

(2) 지역브랜드가치 제고지원사업 : 효과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한 맞춤교육 및 경영전략 상담 실시, 국내외 브랜드출원비용 지원, 지역기업의 특성에 맞는 신규·리뉴얼·사회적기업 브랜드 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디자인 융합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4〉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계	경영전략 상 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브랜드 출원비용 (국내외)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브랜드 사업화
2010	300	241	124	3	108	6	6
2011	650	283	125	1	136	21	-
2012	600	279	134	0	139	6	-

※ 2010년부터 사업 시행

(3) 지역디자인가치 제고지원사업 :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인식제고 및 관리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 국내외 디자인출원비용 지원,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55〉 지역디자인가치제고사업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계	경영전략 상 담	디자인검색 및 출원비용	디자인개발 및 권리화	지역대학 우수디자인 거래 지원
2010	140	134	87	40	6	1
2011	300	181	122	47	12	-
2012	250	163	100	56	7	-

※ 2010년부터 사업 시행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장 송경일, 연구개발담당 박천재, 담당자 박민철

4-8. 고흥「나로우주센터」활성화 추진

가. 추진배경

우주개발은 통신, 방송, 환경, 국방, 국토관리 등 경제·사회·과학기술·산업분야 뿐 아니라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96~'15)에 따라 위성을 저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내 자체 발사장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2001년 1월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1번지를「우주센터」건설 대상지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그 동안 첨단과학산업이 빈약하던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관련 대규모 국책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미래 유망산업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고흥「우주센터」는 국내 최초 위성 발사장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13번째 우주센터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고 국제스페이스클럽에 당당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고흥「나로우주센터」건설

고흥「나로우주센터」는 10년간('00~'09) 총 사업비 3,125억원(센터건설 2,895억원, 우주과학관 230억원)을 투자하였다.

주요시설로는 발사체인 로켓을 조립 시험하는 조립시험시설, 발사대, 발사체를 자동 추적하는 광학 추적 레이더동, 발사 통제동, 추진기관 시험동 등이 있다.

또한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내방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교육장의 역할과 함께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한「우주과학관」이「나로 우주센터」와 함께 2009년 4월에 개관하였다.

다. 추진상황

「나로우주센터」는 2000년부터 부지 5,065천㎡(약150만평)의 토지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9년여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2월 발사대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2009. 6. 11일 우주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또한, 2009. 8. 25일 나로호(1차)를 발사했으나 페어링 덮개 개폐장치 이상으로 발사는 성공했음에도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으며, 2010. 6. 10일 나로호 2차 발사도 발사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여 필리핀 공해상에 낙하하고 말았다.

나로호 3차 발사는 밸브 제어용 헬륨가스 압력저하, 2단 로켓 추력방향제어기 전기신호 이상 등으로 수차례의 발사 연기에도 불구하고 2013. 1. 30(16:00) 나로과학위성을 고도 300km 지점 상공에 진입시키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또한 2020년까지 순수 국내기술력의 총체인 KSLV-Ⅱ(길이 50m 300톤급) 개발에 1조 5,449억원을 투자하여 로켓엔진 시험동, 발사대 확장 등 나로 우주센터를 확장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2021년에는 우리기술로 만든 로켓(KSLV-Ⅱ)을 발사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이종신

4-9. 고흥 「항공기성능시험센터」 건립 추진

가. 추진배경

항공센터 확장은 정부가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목표

로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중형항공기, 민간헬기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개발중인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성능·안전성을 평가하는 시설로 항공 선진국의 척도이다.

이에 전남도, 고흥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연계하여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43억원을 투자하여 항공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정부의 항공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센터를 확대·발전시킨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나. 「항공센터」 확장 추진상황

「항공센터」는 2002~2009년까지 2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50m급 비행선 시험동, 헬기착륙장치 낙하시험동, 활주로 0.7km, 주기장, 무인기시험동, 나로호 2단 엔진시험동을 완비하고 KHP 성능시험을 비롯한 비행선 개발, 각종 무인기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1월 정부의 「항공산업 기능별·지역별 발전계획」에 전남이 비행시험평가 R&D분야 유망거점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추진하는 항공센터 확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2012년 11월 항공센터의 장비 확충, 비행시험 R&D, 활주로 확장, 산학협력동 등이 포함된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 사업이 지경부 계속사업(2012~2016/200억원)으로 선정되어 '12년도 국비 4억원, '13년도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정부의 「항공산업 기능별·지역별 발전계획」에 전남의 비행시험평가가 선정 된 것을 발판으로 국토부에서 2020년까지 중·대형항공기 시험평가가 가능한 비행시험연구동, 비행시험시설, 2.4km 활주로, 대형이음속풍동, 초음속풍동 등의 시설구축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비행

종합시험센터 유치를 목포로 하고 있다.

이에 고흥만 간척지내 필요한 부지 330ha(100만평)를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와 간척지 용도변경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이종신

4-10. 과학기술진흥센터 건립·운영

가. 추진배경

2008년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으로 추진된 과학기술진흥센터는 목포 삽진·산정산단, 영암 대불·삼호산단, 해남 화원산단 등 전남 서남권에 소재한 5개 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초원천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기대하며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고가 연구 장비를 한곳에 집적화하고 고도화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술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술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추진내용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연구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국비 150억원과 지방비 15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8~2012년까지 5년간에 거쳐 영암 대불산업단지내에 과학기술진흥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간에 공동 연구기능이 가능하도록

230억원을 투입하여 19,835㎡(6,000평)부지에 11,531㎡(3,488평)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연구개발 인프라 집적화에 7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서남권 5개 산단에 입주해 있는 428개 업체(대불산단 316, 삼호산단 2, 삽진산단 37, 산정산단 72, 화원산단 1)와 목포대 중형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 중소조선연구원 서해분원, 조선기자재연구원 전남분원 등 14개 연구기관 및 목포대 등 인근 9개 대학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진흥센터를 활용하게 된다.

다. 추진상황

「전남 서남권 지방과학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은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신청결과 2008. 1월 선정되었고 한국연구재단과 전남도, 전남테크노파크간에 2008년 6월 협약을 체결하였다.

1단계 사업종료 이후 센터자립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2009년 11월 완료하였고, 우리지역 특화 전략산업인 조선기자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소재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개 과제를 선정하여 총 2억원을 2009년 12월 지원하였다.

과학기술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2,876백만원에 구입하고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2009년 10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

이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2009년 11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 4월 센터건립공사 실시설계와 엠지엘건설, 성암토건(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5월 센터건립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1월 센터를 개원했으며 현재까지 5개 연구기관과 7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라. 앞으로 추진계획

산·학·연이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맞춤형 기초원천 연구개발을 본격

추진하며, 1단계사업 종료 이후 자립화 방안을 찾기 위해 교과부 주관으로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간다.

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과학연구단지의 기초원천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203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1조원, 1만2천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과학융합기술담당 노관구, 담당자 이경연

4-11. 「지방테마과학관 건립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자연과 과학, 문화를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 테마과학관을 건립하여 지방의 과학기술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과학문화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나. 추진내용

과학관 건립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총 사업비 337억원(국비 63, 도비 30, 시·군비 244)이 투입되어 장흥 정남진천문과학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순천만 천문대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등 5개 과학관이 개관되었다.

또한, 목포시에 바다생물전시관을 갖춘 어린이바다 체험과학관, 장흥군에 물전시관을 갖춘 정남진 물과학관 등 2개소가 건립 중에 있어 조만간 개관을 앞두고 있다.

〈표 2-57〉 지방테마과학관 운영현황

과학관명	위 치	사업기간	사 업 비(백만원)				주 요 기 능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곡성 섬진강 천문대	곡성군 고달면 가정리 청소년야영장 지구내	'04~ '07	1,403	500	150	753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청소년 및 지역민 등에게 천체와 우주에 대한 산교육장 제공	'08 개관
정남진 천문 과학관	장흥군 · 읍 평화리 산 7	'04~ '06	3,510	800	450	2,260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06 개관
순천만 천문대	순천시 대대동 162-7 자연생태 공원내	'05~ '08	2,400	1,000	360	1,040	• 천체관측 및 천문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08 개관
고흥 우주천문 과학관	고흥군 도양읍 용정리 산 507-2	'07~ '10	6,700	2,000	-	4,700	• 우주 및 천문과학정보 보급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11 개관
목포 어린이 바다체험 과학관	목포시 산정동 1454(삼학도 근린공원내)	'07~ '12	11,700	1,000	-	10,700	• 해양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 • 해양 과학체험을 통한 여가 공간 제공	'12 개관 예정
장흥 정남진 물과학관	장흥군 · 읍 행원리 1270-3	'10~ '12	6,000	1,000	-	5,000	• 물을 활용한 학습장 활용 • 지역민 및 관광객 등에 대한 여가 공간 제공	'12 개관 예정
전라남도 과학 교육원	나주 · 금천 영산로 5695번지	'89~ '90	2,000		2,000		• 과학탐구능력 신장 및 교사 연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전문성 향상	'91 개관
합계	7개소		33,713	6,300	2,960	24,453		

※ 관리자는 해당 시장 · 군수임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담당자 김은정

4-12. 융합기술 육성체계 구축

가. 추진배경

차세대 기술혁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타 분야와의 상승적 결합을 통한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y)이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신산업 및 신성장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융합기술의 조기 선점이 필수적임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융합기술 개발사업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 정부의 융합기술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기본계획 ('09~'13) 중 융합기술 개발분야의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에 약 5조 8,9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나. 추진상황

정부의 융합기술 육성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2008년 8월 과학기술과(신성장동력과로 변경, '11. 1.)에 과학융합기술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추진체계를 갖추었으며,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2009년 3월 「전남 융·복합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정부정책과 전남의 산업환경을 살펴보고, 기존 전략산업인 조선산업과 소재산업, 생물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축으로 하여 중앙정부 정책의 맥을 잇는 방향으로 융·복합기술 육성 전략을 마련하였다.

1차 자원의 활용·가공산업(식품, 한방의료 등), 전남의 전통적인 주력

기간산업(조선, 생물산업 등)의 영역과 IT, 신소재,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물류, 문화·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과 기존산업 및 신기술의 융합으로 신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며, 전남의 주력산업을 발판으로 바이오 에너지, 저탄소 그린산업 등 지속가능 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광주과학기술원이 함께 추진한 러시아 해양연구소 유치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9~2015년까지 6년간 국비 48억원을 받게 되었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우수한 첨단해양기술(MT)과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의 신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해양장비 국산화 기술개발(200억원) 및 해양장비 실증시험단지 구축(300억원) 등 IT와 해양을 융합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첫 단추가 되었다.

또한, 2012년 말에는 동신대학교와 함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융합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2015년까지 국비 194억원 포함하여 총 259억원을 투자하여 나주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기술과 우리도의 특화자원인 생물산업, 친환경농업과의 융합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웰빙시대에 적합한 친환경 천연의약품개발 등 우리도에 부족한 한방관련 R&D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도의 한방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앞으로 전남 융·복합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20건의 융합기술 발굴과제에 대한 구체적 추진은 물론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프로젝트와 연계 또는 공모사업 응모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담당자 김창오, 김범석

4-13. IT융합산업 기반구축

가. 추진배경

20세기 최고의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은 기존 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기술이며, 다양한 사회문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IT 기술이 최근 들어 BT, NT 등 신기술이나, 기존산업과 접목을 통해 끊임없이 신규 시장들을 창출하고 있어 IT융합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4대 전략산업인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등과 IT융합을 통해서 관련 산업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현재 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지난 2004년부터 정부 등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총 9건 792억원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기업체 투자유치, 산업체 지원, 특허출원, 인력양성 등 IT융합기술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향후 전남도의 IT융합산업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대학 IT연구센터」와 「IT융·복합 인력양성센터」 등 공모사업에서 목포대의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와 「IT+조선 융·복합 인력양성센터」가 각각 선정되어 핵심 전략산업 지원과 산학연 고급인력 공급체계가 마련되었다.

〈표 2-58〉 IT융합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연도	총사업비 (억원)	주관기관	기술개발 실적(건)
9건		792		501
디지털콘텐츠 협동연구센터 구축・운영	'04~'09	316	동신대	68
u-농업 IT응용연구센터 지원	'05~'11	41	순천대	92
친환경 어류양식연구센터 지원	'06~'10	41	전남대 (여수캠퍼스)	22
광양만권 u-IT연구소 구축 운영	'06~'10	140	(재)광양만권 u-IT연구소	29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센터 지원	'08~'13	71	목포대	172
IT+조선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지원	'09~'12	35	목포대	107
한・러 MT-IT 융합기술센터 운영지원	'09~'15	106	광주과학 기술원	8
지역 S/W 융합사업 지원	'10~'11	22	목포시	3
지역 S/W 품질역량센터 지원	'10~'14	20	전남문화 산업진흥원	-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담당자 김범석

4-14. 인쇄전자 산업화 추진

가. 추진배경

미래산업은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과 관련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인쇄전자는 딱딱한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유연한 종이나 플라스틱 등에 전자부품 소자 반도체를 인쇄 방식으로 저가에 대량생산 가능하고 제조과정이 친환경적인 첨단기술이다.

우리도 소재 대학과 기업에서 인쇄전자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산업화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및 기업이 협력하여 조기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상황

현재 세계적으로 성장 발아기에 있는 인쇄전자의 기술개발과 세계시장 선점효과로 국제 표준제정 등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노력중이다.

2010년 전남·전북·광주광역시가 연계하여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으로 국비 62억원 등 총 115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쇄전자 RFID 태그, 인쇄전자 사인 보드, 휴대용 인쇄전자 태양전지 등을 개발 상용화하는 사업이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향후 지식경제부 “신시장 창출형 미래산업 선도기술 6대 대형 미래

먹거리” 기술로 선정된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담당자 김창오

4-15. 터치 융·복합 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최근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PC 등에 터치패널을 이용한 디바이스가 적용되면서 터치산업은 연 평균성장률 50% 이상의 고성장 최단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터치패널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국내 터치 패널 산업도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 점유율은 5.4%에 불과한 실정이다.

터치패널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및 패널 양산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을 같은 경제권에 집중, 광역권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공동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른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나. 추진상황

2011년 전남·전북·광주광역시가 연계하여 “터치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국비 121억원 등 총 264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터치패널 핵심 소재 기술인 터치패널용 ITO Film, 접착제 개발, 지문방지 코팅기술 등을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박차를가하고 있으며 주요 박

막필름기술을 보유한 수도권 소재 기업이전도 가시화 되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향후 연구 개발된 기술을 국내 시장 선점 및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과학융합기술담당 장우환, 담당자 김범석

4-16.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기반구축 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LCD, LED 등 마이크로 전자산업 등에 첨단 레이저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정밀가공을 가능케 하는 차세대 핵심기술인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가공기술 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2011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치하였다.

'차세대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기반구축사업'은 2011. 3월부터 2016. 4월까지 장성 나노일반산업단지에 총 296억원(국비 250, 지방비 46)을 투자하여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Laser Source, Working Station 등 레이저 시스템의 테스트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사업 아이템 가공기술 개발지원과 애로·선도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관련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나. 운영상황

현재, 장성 나노산단 내 9,891.6㎡ 부지에 2013. 6월말 완공을 목표

로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를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축중에 있으며, 우수 전문인력 및 장비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인 기업지원과 기업 애로 및 상용화 기술개발에 총력을 다해 레이저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담당자 오미경

5. 지역 성장동력산업 육성 기반구축

5-1. 미래산업 발굴 육성기반 마련

전남도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타 지역에 비해 소외되어 고속도로, 철도 등의 SOC뿐만 아니라 기업체, 연구 분야 등 산업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전남도를 후손에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물려주기 위해 2006년 9월 전략산업과(현.신성장동력과)를 신설하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남테크노파크(기획단, 기업지원단, 특화센터 등)와 생물재단 등 지역혁신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도의 경제산업분야 전략산업(생물, 신소재·조선)의 육성·발전과 IT, BT, NT, ST, NDT 등 미래첨단 분야의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가고 있다.

전남의 주력산업인 생물산업은 비교우위 특산자원에 대한 단순 제조가공식품의 수준을 넘어 기능성 인증 등록을 통해 산업화 조기 촉진 및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Green BT(생명기술) 기반 첨단 융·복합 기술을 연계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용 인력을 창출하여 나가고,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확대 및 해양레저관련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추진하고 있으며, 신소재산업은 나노기술을 통한 소재개발사업 육성 및 신소재 부품산업 융복합화, 첨단 고분자 신소재제품 생산확대 등을 위한 연구, 생산기업을 계속 유치하고 있다.

전남 미래산업의 첨단화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항공우주산업을 위해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선도기술 R&D센터 구축, 우주로봇산업, 체험, 교육시설을 연계한 항공우주 관광 및 산업 메카로 나아가기 위해 선점해 나갈 필요가 있고, IT융복합산업, 글로벌 신해

양산업, NDT산업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기반 조성시키는데 이러한 기반을 위한 세계적 수준 해외연구기관과 협력, 국내의 각종 연구소 유치 및 설립 등 통한 고급 인력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의 발굴, 육성·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나가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우리 도와 광주광역시·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광역경제권은 1단계 사업(2009~2012)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에 국비 약 1,809억원을 투자하였고, 2단계 사업(2013~2015)으로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 수송기계산업에 약 2,000억원을 투자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2010년 헬스케어 소재산업 국제상호 인증제품화지원 등 8개사업에 427.48억원, 2011년도에 선정된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등 4개 336.6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R&D사업비 및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기반 역량을 높이고 있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담당자 심재명

5-2. 전남테크노파크 조성

가. 조성배경 및 기능

테크노파크는 대학·연구기관,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과 기술집약형 산업의 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창업보육·교육훈련·기업지원서비스 기능 및 시험생산 기능을 한 지역에 집적시킨 단지를 말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전라남도의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혁신역량강

화 및 지역혁신주체간의 허브역할 수행을 위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여, 2003년 12월에 설립되어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산업 혁신주체간의 연계와 거점기능을 수행하며, 기존사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촉진과 지식기반 신산업을 창출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도의 산업육성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전남테크노파크는 정부의 지역혁신체계 통합지침(구.산업자원부 거버넌스 추진 정책)에 따라, 정책기획단과 신소재진흥재단을 통합한 이후, 2013년 3월 현재 2단, 4센터, 2실, 1부설기관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정책기획단은 전라남도의 전략산업을 발굴하기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지원단은 지역기업의 역량강화, 기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등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및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며, 특화센터는 전남의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신소재센터, 세라믹센터, 고분자센터, 레이저센터 등 4개 센터로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신소재센터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신소재기업, 세라믹센터는 비산화물 구조용 세라믹 기술개발 및 연관기업, 고분자센터는 우주항공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고분자융·복합소재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관기업 집적화 지원, 레이저센터는 반도체 및 LED 등 응용레이저시스템 기반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법인의 통합 운영관리 및 지원하는 행정지원실 및 재반규정 준수 및 대내외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이 본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부설기관으로 전남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전담하는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다.

나. 추진상황

전남테크노파크는 4대 전략산업(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발전과 IT, BT, NT, ST 등 미래 첨단분야 및 특화 가능성

이 높은 신소재, 정밀화학, 정보·전자소재, 기계부품 등 2차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단지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순천시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에 부지 33천㎡, 연면적 12천㎡ 규모로 2006년 1월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완공함으로써 테크노파크 업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테크노파크 1단계 조성사업(2003. 12. 1~2008. 6. 30)은 단지조성을 축으로 창업보육, 연구개발, 장비활용, 교육훈련, 정보이용, 시험생산, 기업지원사업 등 6대 목적사업과 기술혁신체제 구축사업 등 지역산업 육성의 중핵기관으로 자라매김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 및 운영시스템을 완료하였다.

테크노파크 2단계사업(2008. 6. 1~2012. 12. 31,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을 목표로 모니터링 기업군 구축 및 관리, 산·학·연 연계협의회 운영,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DB구축, 창업(후) 보육지원, 기술경영통합지원, 창업보육센터연계활성화, 기술투자촉진(국제협력)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TP 1단계 목적사업인 창업보육, 공동연구개발, 정보교류, 교육훈련, 장비활용, 시험생산 등 테크노파크의 주요기능과 연계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는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직을 가진 기관으로 기구축된 특화센터(신소재, 세라믹, 고분자, 레이저)별 원천기술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2012년도 기업지원실적을 요약하면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 LED, 신소재, 납석, 금형 등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9개 과제 65억원, 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기술개발 지원에 15개 지원사업분야 21억원, 기술사업화, 마케팅, 국내외 인증, 기술이전 등 기업지원사업에 469업체 42억원을 지원하였고,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179개 과정, 2,706명에 대하여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펼치며, 인프라 활용(입주기업 및 장비활용)을 통해 2013년 현재 19,004㎡에 92개의 입주기업, 400여명의 고용인원, 연기준 3,000여억원의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기술 보유업체를 선정하여 지역을 선도해 나갈 전남의 대표기업으로 육성시키는 목적으로 현재 ㈜썬테크, ㈜KS야나세, ㈜거성이앤지, ㈜죽암기계, ㈜도울F&B, ㈜뉴텍, ㈜세노코, ㈜엘시스, 삼우중공업㈜, ㈜픽슨, 완도물산, ㈜엡스코어, 샬롬산업㈜, ㈜우승산업, ㈜동의나라, ㈜알메탈, ㈜드림라임, ㈜코인즈, ㈜릴테크, ㈜신성메이저글러브 등 20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지정하여 정부지원제도, 테크노파크지원제도 등 가능한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전담의 맞춤형 기업육성지원을 하고 있다. 나아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 유망중소기업의 조기성장을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으로 육성시키는 목적으로 집중지원 및 세밀하고 정밀한 분야에 대한 전남테크노파크 직원과 자문위원간의 협력지원으로 기업중심의 전략적 패키지 형태의 컨설팅을 지원, 운영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기술혁신 지원기관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하이테크협의회 등 80분야에 118회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성·운영(2012년 기준)하며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애로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아이템의 기획 및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전남테크노파크는 현재 지역산업진흥육성계획(2013. 1. 1~2015. 12. 31)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신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계획에서는 정부의 지역사업 개편(광역선도-지역특화)으로 인한 지역별 3년간의 산업육성 성과목표 및 예산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

서 전남지역 특성과 비교우위 산업(자원)을 집중 육성하는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확대 등 지역산업발전 정책의 지역귀착을 유도,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을 위해 기업특성조사 실시 등 사전기획을 강화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성과 중심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으로 추진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 제도의 활용 극대화, 특화산업별 전문 인력 운용을 통한 선도기업의 육성, 신성장동력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남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시스템 활성화 등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담당자 고영량

5-3. 정책기획단 운영

가. 설치 및 기능

정책기획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10월 발족하였다.

지역의 R&D 활성화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별로 설치된 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비 발전계획 수립, 지역산업기술지도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 발굴, 연구기획 업무 등 기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한다.

나. 운영상황

정책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산업기술지도(RTRM) 작성,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의 발굴 및 연구기획 등의 주요 기능을 통해 전남도 전략산업을 선도하는 브레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전라남도 4대 전략산업(신소재·조선, 생물, 물류, 문화·관광)을 10년간 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해오면서 기술개발과제의 90% 이상 성공, 기업매출과 고용성장, 특허출원 등 부문별로 다양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전남 10대 성장동력산업을 발굴, 향후 10년간 전남을 이끌고 갈 사업으로 세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지역산업진흥사업 1단계(2002~2007)에서는 전략산업 기반구축을 추진하고, 2단계(2008~2012)에서는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3단계(2013~2015)에서는 5개의 신지역특화산업(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 기반 구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을 육성하여 기업매출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다. R&D는 기업이 주관하는 고용창출형 기술개발과제를 비R&D는 기업매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지역산업협의회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미니클러스터를 더욱 강화, 활성화시켜 지역의 현안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정보 공유를 위한 별도의 정보 확산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신특화산업 발굴시 조사한 지역산업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업집적지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클러스터화 촉진에 매진할 것이다.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추진 정책에 따른 지역 대응전략 모색은 물론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방향에 맞춰 호남광역경제권 체제에서 추진 가능한 전략산업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과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 선도 산업의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담당자 오미경

5-4. 생물산업 육성

가. 추진배경

1차 산업 위주의 취약한 현 전남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기초 소재가 풍부한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등 21세기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생물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추진상황

1999년 8월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지역은 생물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적의 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기관 : 삼성경제연구원) 2000년 4월 "전남 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1년 산업자원부의 "권역별 지역산업발전계획" 타당성 조사(산업연구원)를 근거로 2002년에는 (재)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였다. 재단 내에 식품산업을 선도할 나주 '식품산업연구센터', 생물의약산업을 일으킬 화순 '생물의약연구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식품, 의약, 나노바이오, 생물방제, 천연자원연구원, 독감백신 기반구축,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2,422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기반구축을 토대로 각종 국가 R&D과제 수주 및 연구, 지역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그리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들을 통해 전남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식품 및 의약분야를 선도하고 기업지원을 전담하게 될 식품산업연구센터(나주)와 생물의약연구센터(화순)가 2006년 말 완공되어 30여개 기업이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성장 기틀을 다지고 있으며, 2005년에는 독감 대유행(Pandemic)에 대비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독감백신의 국내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2008년 12월에 '독감백신원료생산기반구축사업'을 완공하였으며, 계절독감백신 330만도즈, 신종플루백신 2,400만도즈를 생산함으로써 2009년 대유행한 신종플루를 극복하고, 남미 콜롬비아까지 수출하여 전세계에 우리의 보건안보 수준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사업의 최대 가동 예상 시점인 2014년에는 연 1,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0~500 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나노산업'과 '생물농업'의 거점이 될 '나노생물 소재 실용화 사업과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010년까지 총 379억원을 투자하여 장성에 '나노바이오연구센터'와 곡성의 '생물방제센터'를 구축하였다. 장성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나노바이오기술 실용화 연구, 창업보육, 기업유치,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곡성 생물방제센터에서는 천적관련 신기술 개발, 천적생산, 유용생물 종자은행 운영, 친환경 농자재 생산·연구개발(미생물제제, 농약)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모든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표 2-59 〉 생물산업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지 역	사 업 기 간	사업비	규 모	주 요 기 능
계	8개사업		2,422 (683)		
식품산업 연구센터 건립운영	나 주 지방산단	'02~'07	443	·부지 33천㎡ ·건물 9.6천㎡	생물식품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생물의약 연구센터 건립운영	화 순 지방산단	'02~'07	252	·부지 26천㎡ ·건물 5.3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	화 순 지방산단	'05~'08	800 (607)	·부지 66천㎡ ·건물 17천㎡	독감백신 생산 (연 20백만 도스 이상)
지역임상 시험센터 건립운영	전남대 병 원	'05~'10	104 (17)	·건물 1천㎡	국제 임상시험수행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건립운영	장 성 남 면	'06~'09	180	·부지 17천㎡ ·건물 5천㎡	나노생물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
생물방제센터	곡 성 입 면	'06~'09	179	·부지 33천㎡ ·건물 10천㎡	생물방제 연구개발 천적 생산
천연자원 연구원	장 흥 안 양	'07~'10	176	·부지 17천㎡ ·건물 4천㎡	지역특산자원탐색 산업화 지원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	화 순 지방산단	'10~'13	288 (59)	·부지 33천㎡ ·건축 9.9천㎡	GLP 기반구축, 생물자원 D/B 구축, 기업지원

* ( )는 민자 금액

그리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에 풍부한 지역 특산자원의 기능성 연구분석 및 제품화·산업화를 선도해 나갈 전문기관으로 '천연자원연구원'을 설립하였고, 지금까지 122건의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선별하여 단계별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관련기업유치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2010년,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공모사업)으로 '헬스케어 소재산업 기반구축사업'과 '호남권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288억원과 223억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호남권내 비교우위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정보 네트워크 구축, 시험인증 시설기반 조성을 통한 헬스케어 선도권역 구축 및 생물기술기반 첨단 융·복합 기술을 연계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고기능성 라이프 케어 응용제품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전남을 생물소재 원료기지로 육성해오고 있다.

특히, 2013. 6. 1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헬스케어 연구소가 화순 의약산업단지에 준공됨에 따라 연구소, 전임상기관, 임상기관, 관련기업 등의 집적화로 생물의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다. 앞으로 추진방향

생물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산 · 학 · 연 협동 연구체제를 확립하고, 최첨단 연구·분석·실험장비 등을 도내 관련 기업에 지원하고 국가 R&D과제 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창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부의 생물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권역별로(나주, 화순, 장성, 곡성, 장흥) 생물산업 관련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이 집약된 생물산업 클러스터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남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의 독특한 자원을 연구 · 개발하고 산업화하여 앞으로 1차산업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 유통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유치 및 기능성식품개발 등을 통해 전남이 바이오산업 시대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생물산업담당 이장범, 담당자 김옥남, 박정현, 황정선

5-5. 조선산업 육성

가. 산업의 일반현황

조선산업은 자본과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막대한 초기자본이 필요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1970~80년대에 본격적 산업 기반을 갖추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교역량 증가에 따른 해상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선박수주 및 건조량에서 세계 1위의 수출효자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추격, 유럽재정위기 등과 세계 경기침체 영향으로 2009년 이후 극심한 침체를 겪게 되어 대형조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형급 조선사들이 워크아웃 이나 법정관리 등의 경영 악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 대부분의 조선기업들도 수주난과 선가하락으로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조선기자재기업이 집적된 대불산단 내 30여개 소규모 기자재기업들이 퇴출되는 등 조선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5년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10%)을 기록하게 되었다..

다행히 세계적인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양플랜트 분야가 조선업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드릴쉽,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 등 해양플랜트 분야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양레저장비 분야에 있어서도 전남지역의 소형 조선사 및 기자재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진입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조선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나. 추진배경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부산·경남 등 동남권 중심으로 대형조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였다.

반면, 전남권 조선산업은 한라중공업(현재, 현대삼호중공업)과 30여개사의 소형조선사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조선시장은 역사적 유래가 없을 정도로 호황이 전망되는 시기였다.

이에, 전남도는 서남권 해안의 낮은 파고와 적당한 수심, 온화한 기후, 수많은 섬들이 천연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등 천혜의 조선소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조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조선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2003. 7월)」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방안(2003. 9월 ~ 2004. 3월)」 수립을 통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의 4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조선산업을 선정(2004. 7월, 국가발전위원회)하여 「지역 주력산업으로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2004년부터 조선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다. 추진상황

2004년부터 중형급 조선사 유치(6개사)와 소형조선사의 중형화(4개사)를 유도<표 2-62 참조>하였고, 중형조선사 및 기자재산업 기반구축, R&D 역량 및 기술경쟁력 강화 등의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도에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선박블록, 선박의장기업 등 180여개사의 조선기자재산업 집적화를 이루었다.

또한, IT기반 서남권 중형조선산업 RIC 구축(목포대, '06 ~ '15, 115억원), 신성장 녹색해양기자재 RIS 구축(목포해양대, '10 ~ '13, 25.5억원), 중소조선연구원 서해본부 및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분원

유치('08. 1월) 등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였고, 조선산업 기업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전남TP, '10 ~ '12, 70억원), 대불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산단공 대불지사, '08 ~ 계속, 30억원/년), 조선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2004 ~ 2010, 5개단지 426억원) 등 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전남 서남권 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

〈 표 2-60 〉 전남 지역 유치 조선사현황

조선사명	소 재 지	규 모	비 고
대한조선	해남 화원산단	· 2,233천㎡('04. 8월 설립) · 18만톤급 벌커	신규
신안중공업	신안지도농공단지	· 271천㎡('06년 7월 설립) · 3~6만톤급 벌커	신규
오리엔트조선	광양 율촌산단	· 951천㎡('08년 4월 설립) · 18만톤급 벌커	신규
C&중공업	목포 삽진산단	· 147천㎡ · 10만톤급 이하 벌커	신규
T K S	영광 칠곡농공단지	· 149천㎡('07년 8월 설립) · 8만톤 이하 벌커	신규
고려중공업	진도 군내산단	· 684천㎡('09년 1월 설립) · 18만톤 벌크선	신규
세광조선	목포 삽진산단	· 514천㎡('65년 1월 설립) · 2만톤급 탱커, 벌커	소형의 중형화
목포조선공업	목포 삽진산단	· 28천㎡('43년 8월 설립) · 2만톤급 탱커, 벌커	소형의 중형화
YS 중공업	여수 돌산읍	· 684천㎡('08년 1월 설립) · 1.5만톤급 이하 벌커	소형의 중형화
광성조선	목포 삽진산단	· 32천㎡ · 2만톤급 벌커, 탱커	소형의 중형화

그러나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듯한 전남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게 되어 대한조선 등 7개사가 워크아웃(1개사), 법정관리(2개사), 퇴출(1개사), 매각(3개사)이 되는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표 2-61〉 전남지역 조선사 구조조정 현황(2009 ~ 2012)

기 업 명	구조조정 추진현황	비 고
대한조선	· 경영정상화 계획(워크아웃) 확정('09. 4월) · 대우조선해양에서 위탁 경영중(11. 7 ~)	워크아웃
오리엔트조선	· 법정관리 개시결정('10. 8월)	법정관리
목포조선공업	· 법정관리 개시결정('10. 10월)	법정관리
C&중공업	· 워크아웃 개시 및 퇴출결정('09. 1월) · 제3자 인수(태양산업, '11. 3월)	퇴출 후 매 각
T K S	· 1차 워크아웃 결정('09. 4월, 5월 졸업) · 조선사 구조조정 결과 D등급 판정('10.6월)	퇴출대상 선 정
YS 중공업	· 법정관리 신청('09.4월), 제3자 인수 후 여수해양으로 선박수리업 개시('10.11월)	매 각
광성조선	· '09년 4월 부도 및 법원 매각허가('10.7월) 후 제3자 인수('10. 10월)	매 각
세광조선	· 법정관리 신청('12. 10월)	법정관리

이에 전남도는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다는 판단하에 2010년부터 소형조선사·기자재기업을 대상으로 해양레저장비산업 및 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서남권 해양레저장비 기반구축 사업(95억원, 2011. 5 ~ 2014. 4)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2012년말 현재 소형조선사·조선기자재기업 등 41개사가 해양레저 및 플랜트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62〉 전남 조선산업 발전 상황

구 분		2005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비 고 ('05년대비)
기업수	조 선 사	32개사	66개사	67개사	73개사	70%증
	기자재기업	140여개사	232	225	220개사	
매 출 액		1조9천억원	6조8천억원	7조1천억원	6조4천억원	236%증
고 용 인 원		8,500여명	26,924명	30,461명	28,807명	238%증

라. 앞으로의 추진방향

전남 조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침체의 어려움에 처한 조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해양레저장비산업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조선 등 2~3개 중형 조선사의 특화 발전, 그린·레저선박 및 해양기자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사업화 지원사업, 중형조선산업 RIC사업(목포대), 녹색해양기자재 RIS 사업(목포해양대), 대불산단 경쟁력강화사업(산단공 대불지사) 등을 통한 조선산업의 위기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新 해양시대에 부응한 해양레저장비산업 발전의 혁신거점 확보를 위한 서남권 해양레저장비기반구축과 연계한 그린레저선박 부품·의장 지원센터 구축, 해양플랜트 지원선(OSV) 연구센터 및 해양플랜트 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등의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조선기업이 해양레저장비나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등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조선산업담당 박병훈, 담당자 최정운, 이경연, 박혜연

5-6. 신소재산업 육성

신소재 산업은 자동차,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로서 기술혁신과 신규 투자가 유망한 신산업이며,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과 연계한 우리도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향후 신소재산업의 발전이 우리 지역의 산업고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 육성배경

신소재 산업은 1차산업 위주의 취약한 현 전남의 산업여건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촉매산업이자 포스코, 여수산단 등 우리도의 산업적 기반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신소재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지대하고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화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고, 세계적으로 조립생산능력의 평준화로 이제는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다.

더불어 2005년 이후 원자재가격의 변동 폭이 커지면서 철강, 에너지, 전자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며 제품 중 함유량이 소량임에도 필수기능을 담당하는 희소금속 소재산업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정부가 희소금속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희소금속을 가공해 소재화 산업을 육성하며 희소금속 재활용기반을 확보하기로 하여, 희소금속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인구증가를 도정의 최대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신소재산업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 추진상황

신소재는 크게 신금속, 파인세라믹, 고분자 융·복합소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도는 3대 신소재별 특화 유망분야를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추진해온 소재별로 특화된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 함으

로서 앞으로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도를 소재산업의 으뜸 道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육성중인 3대 신소재 산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금속 분야이다. 신금속 분야에서는 새로운 거대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마그네슘 등 기능성 경량소재를 특화분야로 선정 하였다.

그 동안 순천시 해룡면 율촌 제Ⅰ지방산단에 부지 9,918㎡, 건물 3,967㎡ 규모의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2005. 6)하였고. 2006년 6월에는 1,322㎡ 규모의 제2공장동을 완공하였으며, POSCO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신사업인 마그네슘 판재공장을 순천시 해룡산단에 2007년 7월에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시설인 시험생산동을 2008년 10월에 준공하여 마그네슘 전문기업이 입주하여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보성군 조성면에 사업비 90억원을 투자하여 경량소재 수송기기 부품사업화 지원동 구축사업을 2012년 3월 준공, 기존 순천 해룡산단과 함께 마그네슘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마그네슘 공급기지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마그네슘을 이용한 LED 방열판 생산기업 등 28개 기업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희소금속을 육성 순천대학교 '희유자원실용화센터' 및 2008년 11월에 준공된 광양제철소내에 SNNC 페로니켈공장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강원, 충청 등 타 지역의 희소금속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희소금속 소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파인세라믹 분야이다. 파인세라믹이란 전통 세라믹제품에 비해 세라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도로 정제된 원료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우리 도에서는 구

조세라믹을 특화분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였다.

구조세라믹은 자동차, 항공기 등 수송기계, 정밀기계용 부품소재 및 모든 고온내열, 내마모 부품으로 사용되는 첨단소재로서 그동안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서남권 세라믹협의회에서 수차례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한 논의 끝에 지역현실에 걸맞고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서남권을 구조세라믹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목포시 연산동에 개소하고, 18개 입주기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Hot Press 등 24종의 장비를 제작하는 등 비산화물계 구조세라믹 부품소재 Hub 구축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고분자 융·복합소재 산업은 2012년 3월까지 고흥군에 사업비 111억원을 투자하여 고분자 융·복합소재센터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5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향후 풍력블레이드, 친환경요트 등 성장성이 높은 미래산업을 육성하는데 산파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3대 신소재별 특화유망분야에 대하여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사업과 연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지역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앞으로의 추진방향

3대 신소재별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심 R&D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사업을 본격 지원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신성장동력과장 윤순선, 미래산업담당 황인섭, 담당자 고영량, 신소재우주항공담당 김영호, 담당자 민일기, 양화영

6. 국제행사 발굴·유치 및 국제교류 지속 추진

6-1. 국제행사 발굴·유치 체계 기초 구축

2012. 8. 31. 국제협력과 국제행사담당이 신설되어 지역 특성을 살린 국제행사 유치와 체계적인 관리, 성공개최로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제행사 정보 수집 및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가. 국제행사 유치 전략기획팀 구성

전남발전연구원장을 팀장으로 하여 대학교수, 경제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 15명으로 국제행사 유치 전략기획팀을 구성하고 '12. 12. 14.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략기획팀은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 대상을 발굴하고,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나. 실·국별 국제행사 발굴·유치 지원

이제까지 실·국별 각기 추진하였던 국제행사 업무를 총괄·지원하여 2012년말 기준 50개 국제행사를 발굴하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유치 확정된 국제행사는 31개이며, 유치 추진 중인 국제행사는 19개이다. 앞으로 발굴된 국제행사는 유치에서부터 성공개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63 〉 국제행사 발굴·유치 현황(2012년말 기준)

구 분	계	2012	2013	2014년 이후
계	50	16	8	26
유치확정	31	16	5	10
유치추진	19	-	3	16

추진부서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장 고영윤, 국제행사담당 나정수, 담당자 이재성

6-2. 국제교류 활동 강화

지난 1986년 미국 미주리주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는 세계 각국의 지자체와 우호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012년까지 31개 자치단체(자매결연 4, 우호약정 27)와 우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 지역 발전 분야로 교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제화 물결에 따라 세계 지방자치단체의 일원으로서 NEAR 등 국제회의 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NEAR내에서는 전라남도의 활동 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2011년 NEAR 농업분과위원회 유치에 이어 2012년 7월 중국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에서 개최된 NEAR 제9차 총회에서「2014 NEAR 제10차 총회」를 전라남도가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 전라남도내에서 개최되는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2국제농업박람회 및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와 동북아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남의 투자여건 및 관광자원을 해외 지자체에 홍보하고 있다.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는 박람회 홍보 및 해외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 증진을 위하여「해외 자매·우호지역 관계관 초청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 일본, 인도네이시아 등 13개 지역 291명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방문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시주 롱키 장골라 주시사 면담, 한국-파라과이 농·공·상 협력증진 유관기관 MOU 체결 의향서 전달,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경제 교류협력방안 논의, 왕즈전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과 간담회 개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표 2-64 〉 외국 지자체와의 교류약정 체결현황

□ 자매결연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자매결연 (4)	미 국	미주리州	1986. 09. 24
	미 국	오리건州	1996. 10. 16
	중 국	저장성(浙江省)	1998. 05. 16
	중 국	장시성(江西省)	2012, 04. 17

□ 우호교류

구 분	자 치 단 체 명		체결일자
우호교류 (27)	일 본	후쿠오카현(福岡縣)	1992. 08. 25
		사 가 현(佐賀縣)	1992. 08. 25
		나가사키현(長琦縣)	1992. 08. 25
		야마구치현(山口縣)	1998. 09. 02
		고 치 현(高知縣)	2003. 05. 30
	중 국	상하이시(上海市)	1996. 04. 19
		장 쑤 성(江蘇省)	1996. 04. 23
		산 둥 성(山東省)	1996. 04. 25
		후 난 성(湖南省	1997. 06. 21
		쓰 촨 성(四川省)	2004. 04. 26
		푸 젠 성(福建省)	2007. 10. 11
		산 시 성(山西省)	2007. 11. 12
		충 칭 시(重慶市)	2008. 09. 03
	독 일	브레멘州	1996. 10. 28
		슐레스비히 홀스타인州	2004. 11. 30
	필 리 핀	리잘州	1997. 05. 07
	말레이시아	케다州	1997. 05. 10
	베 트 남	바리아봉타우省	1997. 05. 12
		껀더市	2012. 12. 04
	태 국	라용道	1999. 08. 27
	인도네시아	서자바州	2001. 04. 26
		중부술라웨시州	2009. 09. 29
	콜 롬 비 아	보야카州	2001. 05. 11
	체코공화국	모라비아-실레시아州	2001. 12. 04
	러 시 아	노보시비르스크州	2005. 09. 28
	키르기스스탄	추이州	2007. 11. 19
	미 국	애리조나州	2010. 09. 29

가. 미국 지역과의 교류

1986년 미주리州, 1996년 오리건州와의 자매결연, 2010년 애리조나州와 우호약정을 체결한 이래 미국과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대학과 민간분야까지 점차 발전시키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여름방학 동안 道내 초·중생을 위해 개설하는 영어캠프에는 포틀랜드주립대 졸업생 180명, 미주리주립대 졸업생 151명, 애리조나주립대 졸업생 61명 등 원어민 강사가 참여하고 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해외 문화체험을 통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1년에 시작된 LA호남향우회의 도내 모범학생 해외 초청행사는 2005년 멕시코 향우회, 2006년 독일 향우회까지 확대되어 2012년까지 총 73명의 도내 소년·소녀가장과 모범학생들에게 선진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2년 6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 한인회 연합회와 매년 도내 중학생 10명을 플로리다주로 초청하여 어학연수와 함께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장 고영윤, 국제교류담당 김홍사, 담당자 김창훈

나. 중국 지역과의 교류

전라남도는 1993년 저장성(浙江省)과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蘇省), 산둥성(山東省)을 비롯한 10개의 중국 연해 및 내륙지역들과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도의 對 중국교류는 전라남도 국제행사에 중국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교육 분야 교류 및 자매결연 지역 확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의 시진핑(習近平) 당시 중국 국가 부주석(*현 중국국가주석) 회견 등을 주요성과로 요약할 수 있다.

199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저장성과는 고교생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학술포럼 등의 정기교류사업 및 스포츠, 문화 등 상호 공동 관심분야에 대한 교류들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미래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20개 초·중·고교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 배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4년 우호교류 약정을 체결한 장시성(江西省)과는 그간 추진되어왔던 고위층 상호방문, 대학생 대상 청소년 교류, 농업분야 교류 등을 바탕으로 2012년 4월 자매결연으로 격상하여 지금까지 동부 연안에 치중된 한계를 넘어 내륙으로 진출하는 중국 교류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다.

2012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중국내 자매·우호지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국인들의 우리 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라남도의 국제적 위상을 한 층 더 높이게 되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에는 7개 지역에서 240명이 방문하였고, 특히 저장성·산둥성·장쑤성은 엑스포에 직접 참여하여 주간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산둥성과는 향후 해양 및 농업분야의 교류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2국제농업박람회에는 저장성과 장시성의 농업관계기관과 기업들이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이러한 국제행사들을 통해 교류지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고위층 교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후베이성(湖北省)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지방정부교류회의, 윈난성(雲南省)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닝샤후이족자치구(寧夏回族自治區)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총회 참가 등을 통해 정식 교류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지역들과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장 고영윤, 국제교류담당 김홍사, 담당자 이애란

다. 일본 지역과의 교류

21세기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화, 정보화,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1992년 태동한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지사회의는 그 동안 21회의 회의를 통해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다자간 국제교류사업의 모범 사례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표 2-65〉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

한 국(4)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일 본(4)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

2012년 제21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는 10. 22~10. 23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 창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책」을 공통주제로 개최되었고, 각 시·도·현에서 실시하는 관련 사업에 대한 상호 이해를 구하는 등 공동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회의에서 전라남도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회원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으며, 전라남도가 제안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한일 포럼 교류 참석」 사업은 타 시·도·현으로 부터 깊은 공감을 얻어 공동교류사업으로 채택되었다.

〈표 2-66〉 시·도·현 지사회의 개최지 현황

연도	개최지	연도	개최지	연도	개최지
1992	제주도	1993	사가현	1994	부산시
1995	나가사키현	1996	경상남도	1997	후쿠오카현
1998	전라남도	1999	사가현	2000	제주도
2001	야마구치현	2002	부산광역시	2003	나가사키현
2004	경상남도	2005	후쿠오카현	2006	전라남도
2007	사가현	2008	제주특별자치도	2009	야마구치현
2010	부산광역시	2011	나가사키현	2012	경상남도

또한, 지난 20년간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2011년 2월 정식으로 우호교류 약정을 체결한 사가현에서 2.5~2.7일 3일간 현지사, 의장, 교육감, 민간단체 등 130여명이 전세기로 우리 도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분야에서 전남도 단체와 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시찰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교류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편 10. 31일에는 목포 공생원 창립자인 윤학자 여사의 출신지이자 우리 도와 관광문화협정, 산업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 고치현에서 윤학자 여사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약 90여명이 목포를 방문하여 윤학자 여사 탄생의 의미를 새기고 양 지역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일본의 날에는 일본 우호교류 5개 지역에서 지사, 부지사 등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사가현에서는 박람회 기간 중 심포지엄 개최, 공연단 파견 등을 통해 박람회 성공 개최에 크게 기여하였다.

추진 부서 **경제산업국** 국제협력과장 고영윤, 국제교류담당 김홍사, 담당자 박순임